

경남 거창 · 산청 · 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

【결정사안】

1950년 7월경 이경록(李慶祿) 외 90명의 거창, 함양, 산청 지역주민들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 거주지 관할 경찰 등에게 국민보도연맹원 혹은 인민군에 동조할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되어 집단 살해된 사실이 확인되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상남도 거창 · 산청 · 함양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이 거창경찰서, 산청경찰서, 함양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1950년 7월경 집단 사살되었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국민보도연맹 경상남도연맹 각 군(郡)연맹에 가입되었던 국민보도연맹원을 포함한 예비검속 대상자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관할 경찰서(지서) 소속 경찰에게 연행되거나 소집통보를 받고 출두하였다가 경찰서 유치장, 지서, 상업은행 창고, 양조장창고 등에 구금되었다. 이들은 이전의 좌익 활동경력 정도 등에 따라 분류되어 지역 경찰서의 후퇴가 임박하였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집단사살되었다.

2. 경상남도 거창 · 산청 · 함양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전체 희생자 수를 추정할 수는 없다. 다만,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곽천섭(郭天燮, 다-79)등 87명이고, 희생 추정자는 노상식(盧相植, 다-8318)등 4명이다.

3.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국민보도연맹원 및 좌익혐의 등을 이유로 예비검속된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좌익활동 경력이 있었던 자수 · 전향자였고 일부는 좌익활동과 무관한 남성들로서 대체로 20~40대의 농업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인이었으나 산청의 경우 국민보도연맹원 소집 당시 도피하여 임신한 자의 가족, 친척 등 10명을 연행, 구금한 후 '대살'(代殺)했는데 희생자 중에는 영유아 4명과 임신부 2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가해주체는 희생자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확인과정이나 사살의 법적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다만 이들이 인민군에게 동조하여 후방을 교란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구금하여 불법사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주체는 거창, 산청, 함양 경찰서(관내 지서 포함) 소속 경찰관들이다. 상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사살명령 여부 및 내용을 자료로서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제 6 권

불법사살에 대한 지휘·명령권한은 전시 계엄하에서 상부기관인 계엄사령부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 지휘책임은 경찰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5. 거창·산청·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이 관할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을 불법 사살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다. 비록 전시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사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전 문】

【사 건】 다-2호 외 50건, 거창·산청·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

【신청인】 이복석 외 74명

【결정일】 2009. 11. 10.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이 유】

I. 조사개요

1. 신청사건개요

신청인 이복석(다-2호) 외 74명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진실규명대상자 88명이 국민보도연맹원 혹은 인민군에 동조할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경남 거창, 산청, 함양 경찰서(관내 지서 포함) 소속 경찰 등에게 예비검속되어 사살되었다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민보도연맹원’, ‘요시찰인’, ‘인민군에 동조할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한국전쟁 발발 후에 예비검속되어 사살된 사건을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분류하였다.

제27차 전원위원회(2006.10.10.)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의결을 하였고, 이후 접수된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제28차 집단희생규명위원회(2007.02.13.)에서 조사개시를 의결하였다. 이중 거창·산청·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은 51건이다.

2. 조사대상 지역

이 결정문은 진실화해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행정구역상 인접한 지역인 거창군, 산청군, 함양군을 묶어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이들 세 지역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에서 특별한 연관성을 찾아 볼 수는 없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각 경찰서에서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가입, 교육, 예비검속, 희생과정에 이르기까지 독립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희생장소가 일치하는 경우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결정문은 각 군(郡)별로 정리하였다.

3.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 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를 통하여 거창·산청·함양 지역에서 발생했던 보도연맹 사건의 경위와 희생자 수와 희생자 신원, 가해주체, 가해의 지휘·명령체계, 위법성 여부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4. 규명과제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여 각 지역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조직 및 활동, 예비검속과 희생 경위, 희생자 수와 신원, 가해 주체 및 가해의 지휘·명령체계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5. 조사내용

가. 신청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 면담을 통해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통화를 하여 통화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진실규명 접수 후에 사망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다른 유족으로 대체하여 조사하거나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한 진실규명신청서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나. 참고인 조사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경위에 대해 사건을 목격하였거나 전문(傳聞)을 통해 알고 있는 참고인과 조사기간 동안 확인된 미신청 유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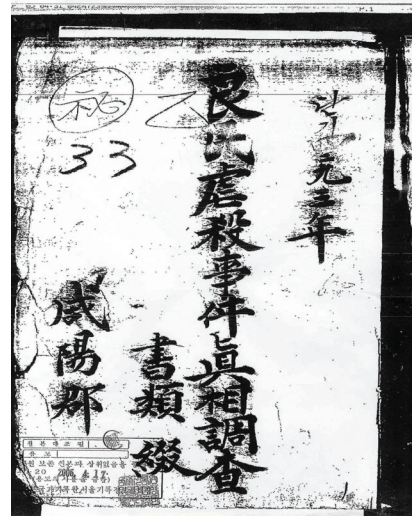
또한 당시 경상남도지방경찰국과 산하 거창, 산청, 함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던 경찰, 의용경찰, 특공대원 등과 생존한 국민보도연맹원, 사건 현장목격자, 시신수습자 등에 대한 주요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 자료조사

1) 국가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 자료조사

가)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서류철』(함양군), 1960년

- 함양군이 1960년 6월에 관내 10개 읍면에 공문을 보내 한국전쟁 전후 피해사항(희생자와 재산피해)을 파악하여 보고토록하고, 이 자료를 취합한 보고서를 국회조사단에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경상남도 지사에게 보고한 자료이다. 이 보고서의 민간인 희생 피해시기는 1948년부터 1952년까지이며 보고서에 기록된 희생자 수는 409명이다. 사건 유형으로는 여순사건 이후 지리산 토벌작전 시기 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한국전쟁 발발 후 11사단 토벌 작전시기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이 있다.



나) 『한국전쟁 전후 거창군 관내 민간인 희생자 진상조사 보고서』 거창군의회(청원심사특별위원회). 2003. 3.

- 거창군의회에 접수된 『한국전쟁 전후 거창군 관내 민간인 희생자 청원의 건』에 대하여 2002년 11월 22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거창군의회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후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군경에 의한 사건, 미군폭격 사건 등이 실려 있으며 총희생자 수는 71명이며,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 희생자 수는 35명이다. 희생자 조사는 청원 건에만 한정해서 조사하였으며, 청원건 외에도 일부 희생자 명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거창 민간인희생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 유족 및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 내용을 기록했을 뿐이며, 사건의 전체 과정을 알 수 있는 조사는 진행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2008년 피해자현황조사 용역사업』 최종결과 보고서. 창원대학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피해자 함양조사단(2009)

- 진실화해위원회의 의뢰로 함양군 관내 읍·면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실을 조사한 결과 국군, 경찰, 적대세력에게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 증언이 있는 희생자는 총 930명이며, 이중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는 96명이다.

2) 신문자료조사

- 동아일보 1949년 4월 23일, 1949년 6월 6일자
- 민주중보 1949년 11월 12일, 1949년 12월 3일자
- 자유민보 1949년 11월 20일자
- 부산일보 1960년 6월 11일자

3) 기타 - 국민훈련원 함양분원 제1기생 수료 기념사진¹⁾



라. 현장조사

1) 거창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자들이 구금되었던 거창경찰서 유치장(현 적십자병원), 상업은행 창고(현 국민은행 거창지점), 양조장 창고(현 농협중앙회 거창군지회 맞은편) 등과 희생장소인 함천군 묘산면 마령재와 봉산면 권빈재를 확인하였다.

2) 산청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자들이 구금되었던 산청경찰서 유치장, 지서 등과 희생장소인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본통고개, 산청읍 내리 마당머리, 산청읍 지리 안개골, 산청읍 내리 쌀고개 앞 등을 확인하였다.²⁾

1) 국민훈련원은 1946년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 김구의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가 통합하여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결성하였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이후 전국조직으로 발전하며 우익정치세력의 국민운동단체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리고 1949년 6월경 산하에 국민운동 지도자 양성기관인 국민훈련원을 전국에 설치하였다. 전남 구례에서는 경찰서장이 국민훈련원을 유치하여 좌익활동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계도한 경우도 있었다.(김성학·임중명, 『광복30년사』, 전남일보사, 1975.) 신청인은 진실규명대상자 이춘성이 국민훈련원에서 교육받은 사진을 제시했다.(사진에서 흰 옷 입고 있는 사람 중 좌측 앞에서 두 번째가 진실규명대상자 이춘성)

2) 그러나 사건번호 다-5259 진실규명대상자 최중환의 제적부에 사망장소가 기록되어 있는 '신안면 외송리 번지불상'의 장소는 마을주민들에게 탐문을 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했다.

3) 함양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자들이 구금되었던 함양경찰서 유치장, 지서 등과 희생장소인 함양읍 난평리 보골(신기마을),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밤나무 숲, 함양읍 백연리 두재고개, 지곡면 보산리 가운데고개 등을 확인하였다.

II. 조사결과

1. 사건 배경

가. 국민보도연맹의 결성

국민보도연맹은 ‘전향자를 계몽·지도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받아 들인다’³⁾는 목적을 표방하고 1949년 4월 20일에 결성된 단체이다. 법률이나 훈령에 근거해 만들어진 단체는 아니지만 중앙본부의 간부진⁴⁾을 살펴보면 김효석 당시 내무부장관이 총재를, 백한성 법무부차관, 장경근 내무부차관, 옥선진 대검찰청 차장이 부총재를 맡는 등 정부의 주도 하에 만들어진 관변단체였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9월 20일부터 지방지부 조직에 착수하였는데 지방지부는 도내 각 경찰서 단위로 하부조직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국민보도연맹 경상남도연맹은 1949년 11월 20일 부산 남일초등학교 강당에서 ‘결성선포대회’를 개최⁵⁾하였고 이후 경상남도 산하 각 시·군 연맹과 읍·면 지부가 결성되었다.

이보다 앞서 중앙 검·경 당국은 1949년 10월 25일부터 1949년 11월 30일까지 남로당원 자수주간을 설정하고 대대적인 자수·전향 작업을 진행하였다. 남로당 등 좌익단체 가입자들은 자수와 동시에 탈당성명서⁶⁾를 신문 광고란에 발표한 후 국민보도연맹 조직에 가입하였다. 1949년 12월 2일 경상남도 경찰국 사찰과에서 발표한 군별 자수자 현황에 의하면 거창경찰서 271명, 산청경찰서 224명, 함양경찰서는 225명이 자수 전향한 것으로 확인된다.⁷⁾

거창군, 산청군 국민보도연맹의 결성 일자 및 조직 체계, 간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발

3) 동아일보, 1949년 4월 23일자.

4) 동아일보, 1949년 6월 6일자.

5) 자유민보, 1949년 11월 20일자.

6) 민주중보, 1949년 11월 12일자에는 산청군 산청면 ○○리 조양래, 산청면 범학리 박명천, 이○중, 박판세, 김을교, 홍석우 등 6명이 남로당 탈당성명서를 발표했다.

7) 민주중보, 1949년 12월 3일자.

제 6 권

견되지 않았다. 다만 함양군의 경우 1950년 1월 14일자 자유민보에 ‘국민보도연맹 함양군 지부 간사장 정장현, 사무국장 박종두, 총무과장 차금영, 보도과장 차재곤, 조직선전과장 이창호’ 라는 광고가 실려 있는 것을 통해 국민보도연맹 함양군 지부의 조직체계와 간부 들을 확인할 수 있다.

2. 거창 국민보도연맹 사건

가. 조사개요

1) 신청인 접수 현황

거창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개인 9건, 단체 1건이다. 단체의 경우 25명이 공동으로 접수하여 거창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전체 신청 건수는 10건이며, 신청인은 34명, 진실규명대상자는 35명⁸⁾이다.

신청인 곽동중(다-79호) 등 35명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거창군에 거주하고 있었던 진실규명대상자들이 국민보도연맹원 혹은 인민군에 동조할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게 예비검속되어 1950년 7월 21일 합천군 묘산면 마령재에서, 동년 7월 27일 합천군 봉산면 권빈재에서 사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조사 개시된 사건 중 거창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분류된 10건의 상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신청인 접수 현황

연 번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유족	진실규명대상자				
				성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당시 주소
1	2005.12.07.	79	곽동중(郭東宗)	곽천섭(郭天燮)	남	28~29	백부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번지미상
2	2005.12.28.	358	엄창주(嚴昌柱)	엄판용(嚴判龍)	남	37	부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193
3	2005.12.28.	358	곽재웅(郭재웅)	곽환섭(郭歡燮)	남	35	부	거창군 신원면 청수리 866
4	2005.12.28.	358	김갑순(金甲순)	김행두(金行斗)	남	28	부	거창군 신원면 청수리

8) 사건번호 다-358 단체신청인 백영인의 경우 진실규명대상자 2명을 신청했다.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3)

연 번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유족	진실규명대상자				
				성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 의 관계	당시 주소
5	2005.12.28.	358	김상규(金相圭)	김형진(金炯進)	남	36	부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523
6	2005.12.28.	358	김진섭(金鎭燮)	김형규(金炯圭)	남	32	부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1058
7	2005.12.28.	358	김진규(金眞圭)	김재규(金在圭)	남	21	동생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1234
8	2005.12.28.	358	이경애(이경애)	김형문(金炯文)	남	24	남편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번지미상
9	2005.12.28.	358	한정임(한정임)	한만봉(韓萬鳳)	남	23	부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번지미상
10	2005.12.28.	358	이기순(이기순)	박재준(朴在俊)	남	20	남편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412
11	2005.12.28.	358	도시분(도시분)	신익성(愼益晟)	남	31	남편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128
12	2005.12.28.	358	전학수(전학수)	신성재(愼晟宰)	남	25	제부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02
13	2005.12.28.	358	백영인(백영인)	백종석(白鍾錫)	남	25	백부	거창군 주상면 성거리 728
				백종문(白鍾文)	남	24	백부	거창군 주상면 성거리 728
14	2005.12.28.	358	이경희(이경희)	이월문(李月文)	남	24	숙부	거창군 주상면 성거리 940
15	2005.12.28.	358	유현중(유현중)	유응락(柳應落)	남	33	부	거창군 신원면 청수리 448
16	2005.12.28.	358	류동현(류동현)	류재하(柳在河)	남	30	부	거창군 주상면 거거리 698
17	2005.12.28.	358	이기일(이기일)	이희구(李熙九)	남	31	부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1318
18	2005.12.28.	358	양기석(양기석)	양개이(梁介伊)	남	32	부	거창군 마리면 고화리 539
19	2005.12.28.	358	옹금례(翁金禮)	박순억(朴順億)	남	30	남편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735
20	2005.12.28.	358	백영선(백영선)	백영복(白永福)	남	28	형	거창군 주상면 성거리 1214
21	2005.12.28.	358	이차분(李次粉)	이윤중(李潤鍾)	남	40	남편	거창군 조제면 농산리 779
22	2005.12.28.	358	백원두(白源斗)	백무흠(白武欽)	남	27	부	거창군 주상면 성거리 727

제 6 권

연번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유족	진실규명대상자				
				성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당시 주소
23	2005.12.28.	358	백원두(白源斗)	백봉흠(白奉欽)	남	24	숙부	거창군 주상면 성거리 727
24	2005.12.28.	358	어윤화(魚允華)	어문우(魚文愚)	남	25	숙부	거창군 가조면 석거리 860
25	2005.12.28.	358	장현애(章賢愛)	주재근(朱在根)	남	25	남편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49
26	2005.12.28.	358	엄명균(엄명균)	엄차술(嚴且述)	남	41	조부	거창군 신원면 양자리 1647
27	2006.04.18.	3066	이상모(李相謨)	이구관(李九管)	남	49	부	거창군 거창읍 동동 881
28	2006.04.21.	3090	신용달(慎鏞達)	신위흥(慎魏興)	남	42	부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796
29	2006.05.26	3725	김동오(金東五)	김봉택(金鳳鐸)	남	33	부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927
30	2006.09.28	5335	신선규(慎鮮揆)	신종우(慎鍾宇)	남	45	부	거창군 거창읍 동동 99-2
31	2006.11.08.	6644	임재춘(林載春)	임재만(林載萬)	남	34	형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471
32	2006.11.22.	7236	박현로(朴鉉魯)	박광남(朴光南)	남	29	백부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21
33	2006.11.30.	8382	박경재(朴鏡子)	박석봉(朴石奉)	남	31	부	거창군 거창읍 중동 1081
34	2006.11.30.	8386	임헌종(林憲鐘)	임기식(林基植)	남	20대 후반 ⁹⁾	부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209

2) 조사내용

가) 신청인 및 신청인 측 참고인 조사

신청인 및 신청인 측 참고인의 주요 진술내용은 <표 2>와 같다.

9) 신청인과 참고인은 희생자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했고 20대 후반으로 기억했다.

〈표 2〉 신청인 및 신청인 측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신청인 주요진술	참고인 주요진술
79	곽천섭	<p>곽동중(조카, 미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부 곽천섭이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전쟁 발발 후에 1950년 7월 27일경 군인들에 의해 연행되어 트럭에 실려갔고 그날 오후 합천군 봉산면 권빈재에서 희생되었다고 들었다. 1주일 후에 시신을 수습하였다. (신청인 곽동중 진술조서, 2008.04.17.) 	<p>곽재섭(사촌동생, 당시 20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촌형 곽천섭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는데 아마 우익청년단체에서 사촌형을 안 좋게 보고 보도연맹에 가입을 시킨 것 같다. 전쟁 발발 후에 사찰계형사들이 마을에 와서 소집을 하여 신원면 사람들이 모여서 트럭을 타고 거창경찰서로 갔고 그 후로 행방불명되었고 1950년 7월 27일 권빈재에서 희생되었다. 약 보름 후에 권빈재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가서 본인이 직접 시신을 수습하였다. 거창 보도연맹원들은 거창읍에 구금되었다가 권빈재와 마령재에서 총살당했다. (참고인 곽재섭 진술조서, 2009.03.18.)
358	엄판용	<p>엄창주(아들, 당시 14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 엄판용은 당시에 면사무소에 근무하였고 아버지의 사촌형이 좌익사상에 심취해 있었다. 당시 신원면 대동청년단장은 박영보였고 신원면장을 겸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사촌형님 때문에 신원지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 사촌형님사건(일명 뼈라사건) 때문에 아버지를 포함하여 신원지서에서 보도연맹으로 가입했는데 모두 17명이다. 그리고 신원면 대동청년단이 지역사람을 임의로 보도연맹에 가입케 하였다. 아버지는 1950년 7월 19일 신원지서 급사 정경술(현재 생존)의 호출을 받고 지서에 출석하였고 사촌형님은 보도연맹원 소집을 보고 피하였다. 신원지서로 출두한 이후 트럭에 태워져 거창경찰서로 이송되었는데 거창경찰서가 짝 차서 상업은행 창고에 구금되었고 창고에는 약 150여 명이 있었다. 창고에서 석방된 2명 중 손기두(현재 사망)씨에게 들어본 바에 따르면 당시 거창경찰서 수사계에 근무하는 김차갑(현재 사망)이 '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손을 들어라'라고 하여 본인과 다른 1명은 손을 들었고, 구금 중인 사람이 다 없어진 후에 도망쳐 나왔다고 하였다. 이때 아버지도 손을 들었더니 김차섭이 '죄많은 사람이 오히려 손을 드네'라고 하자 그냥 내렸다고 하였다. 당시 상업은행 창고에 있던 사람은 약 150여 명이었고 그중 30여 명은 7월 19~20일 사이 밤에 불려나간 후 행방불명되었다. 	<p>신성범(생존자의 동생, 당시 23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 신순범이 신원면 양지리 양지마을 구장을 할 당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형 신순범을 포함하여 신원면 19명이 연행되어 거창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형 신순범과 손기두는 석방되었고, 나머지 17명은 희생되었다. 희생자 중에 신윤성, 엄차술, 엄판용, 정상술 등이 기억난다. 연행자들은 거창경찰서 유치장과 농협창고에 구금되었다가 7월경 권빈재, 마령재에서 희생되었다. (참고인 신성범 진술조서, 2009.03.18.)

제 6 권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신청인 주요진술	참고인 주요진술
358	엄판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21일 50명이 트럭에 태워졌는데 그 모습을 목격했다. 트럭 뒤 양쪽에 각각 경찰 5명이 총을 들고 앉아있었고 보도연맹원들은 4명씩 끈에 묶여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트럭은 GMC 2대였다. 이날 끌려간 사람들은 합천군 묘산면 마령재에서 총살되었다. • 7월 27일에는 아버지를 포함하여 약 70명이 같은 방식으로 트럭에 실려 합천군 봉산면 권빈재에서 총살당했다. 권빈재 인근에 고모가 살고 있어서 사망소식을 듣고 약 3~4일이 지난 후에 시신을 수습하였다. (신청인 엄창주 진술조서, 2008.04.16.)	
	곽한섭	곽재웅(아들, 당시 1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곽한섭이 경찰의 권유에 의해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는데 신원면에서만 10여 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다. 1950년 7월 19일 경찰에게 연행되어 경찰서 옆 창고에 갇혀있다가 1950년 7월 27일 권빈재에서 희생되었고 시신은 수습하였다. (신청인 곽재웅 통화보고서, 2009.09.09.)	박현기(주민, 당시 2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동청년단의 눈 밖에 난 사람은 본인도 모르게 보도연맹에 가입하였으며 1950년 7월 27일 권빈재에서 거창경찰서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다. (참고인 박현기 진술서, 2009.03.18.)
	김행두	김갑순(딸, 당시 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김행두가 할머니의 권유에 의해 보도연맹에 가입하였고, 유치장인지 창고에 갇혀있다가 권빈재에서 희생되었고 시신은 수습하였다. (신청인 김갑순 통화보고서, 2009.09.09.)	정경술(신원지서근무자, 당시 21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살에 신원지서 급사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는데 전쟁 발발 당시 신원지서에는 김차갑 지서장과 김흥식 등 3~4명의 정식 경찰이 있었다. 전쟁 발발 전 지서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왔는데 이들은 대부분 대동청년단과 서북청년단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주민을 잡아왔고 이들은 지서에서 물고문 등 조사를 받은 후 빨갱이가 되었다. 대동청년단 신원면장은 박영보였고 대동청년단원은 약 5~6명이었으며, 서북청년단은 약 15명 정도 되었다. 청년단원들은 경찰 보조업무를 하였는데 이들에게 잘못보이면 지서로 잡혀가 빨갱이로 몰리곤 하였다.
	김형진	김상규(아들, 당시 1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김형진의 경우 신원면 우익단체(대동청년단)에서 일괄적으로 보도연맹에 가입을 시켰다. 1950년 7월 19일경 신원지서 급사 정경술이 호출하여 신원지서에 출석하였으며 트럭에 태워져 거창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거창경찰서가 팽 차서 상업은행 창고에 구금되었고 창고에 구금된 인원은 150여 명이었다. 아버지는 1950년 7월 27일 합천군 봉산면 권빈재에서 희생되었고 당시 트럭에 실려가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다. 1주일 후에 시신을 수습하였다. (신청인 김상규 진술조서, 2008.0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원면 보도연맹원들 수는 모르겠으나 거창읍에 구금되었다가 권빈재와 마령재에서 총살당했다고 들었다. 당시 희생자 중에 엄판용, 엄차술, 김형규, 김행두, 김형진이 있다. (참고인 정경술 진술조서, 2009.03.18.)
	김형규	김진섭(아들, 당시 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김형규는 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보도연맹 가입자들이 전부 피하자 죄가 없다고 생각하여 집에 있던 아버지가 연행되어 거창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27일경 권빈재에서 희생되었다. 총살소식을 듣고 현장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신청인 주요진술	참고인 주요진술
358	김형규	에 갔으나 부패가 심해 시신수습은 하지 못하였다고 들었다. (신청인 김진섭 진술조서, 2008.04.16.)	
	김재규	김진규(형, 당시 23세) • 1949년 거창경찰서 경찰들이 신원면 사람들을 신원국민학교에 모아놓고 “빨갱이에게 쌀을 주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자수해라. 그러면 사죄해준다”라고 하여 동생 김재규가 손을 들어서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 우리 마을에서는 김형문, 김형규, 김재규 등 3명이 보도연맹원이었다. • 동생은 1950년 7월 19일경 신원지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거창읍에 있는 상업은행 창고에 구금되었고 1950년 7월 27일경 창고에서 끌려나가 트럭에 실려 합천군 봉산면 권빈재에서 희생되었다. 사살소식을 듣고 권빈재에 3번이나 찾아갔으나 동생의 시신은 수습하지 못하였다. 시신들은 산비탈에 그냥 널려져 있었는데 한명씩, 혹은 3~4명씩 쓰러져 있었고 그 길이가 약 100m 정도 되었다. (신청인 김진규 진술조서, 2008.04.16.)	김일근(주민, 당시 28세) • 대동청년단의 눈 밖에 난 사람은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1950년 7월 27일 거창경찰서 경찰에 의해 권빈재에서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희생되었다. (참고인 김일근 진술서, 2009.03.20.)
	김형문	이경애(부인, 당시 21세) • 남편 김형문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는지는 모르겠고, 밤에 신원지서에서 보초를 서다가 인민군이 내려오니까 보초를 선 사람들을 잡아다가 경찰이 처형한 것이다. 1950년 7월 15일 마을 이장이 이른 아침에 신원지서에 모이라고 해서 나갔는데 거창에 있는 창고에 13일 동안 가두었다가 7월 27일 권빈재에서 희생되었고 시신은 수습하였다. (신청인 이경애 통화보고서, 2009.09.09.)	김진규(주민, 당시 23세) • 우리 마을에서는 김형문, 김형규, 김재규 등 3명이 보도연맹원이었다. 이들은 1950년 7월 19일경 신원지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거창읍에 있는 상업은행 창고에 구금되었고 1950년 7월 27일경 창고에서 끌려나가 트럭에 실려 합천군 봉산면 권빈재에서 희생되었다. (신청인 김진규 진술조서, 2008.04.16.) 김선욱(주민, 당시 18세) • 김형문이 대동청년단장(박영보)의 눈밖에 나서 보도연맹에 가입하였으며 1950년 7월 27일 거창경찰서 경찰에 의해 권빈재에서 희생되었다. (참고인 김선욱 진술서, 2009.03.22.)
	한만봉	한정임(딸, 당시 1세) • 아버지 한만봉이 거창군청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본인도 모르게 보도연맹에 가입하였고 전쟁이 발발하자 경찰에게 연행되어 현 국민은행 자리 건물에서 구금되었다가 7월 27일 권빈재에서 희생되었고 시신수습은 못하였다고 들었다. (신청인 한정임 통화보고서, 2009.09.04.)	구정기(주민, 당시 22세) • 한만봉이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없이 1950년 7월 27일 권빈재에서 희생되었다. (참고인 구정기 진술서, 2009.03.22.)

제 6 권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신청인 주요진술	참고인 주요진술
358	박재준	이기순(부인, 당시 19세) • 남편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는지는 모르나 같은 마을에 사는 신익성이 보도연맹원이었다. 1950년 여름에 권빈재에서 희생되었고 시신수습은 하지 못하였다. (신청인 이기순 통화보고서, 2009.09.09.)	박영우(주민, 당시 16세) • 박재준은 본인도 모르게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1950년 7월 27일경 거창경찰서 경찰에 의해 권빈재에서 희생되었다. (참고인 박영우 진술서, 2009.03.22.)
	신익성	신청인 도시분이 병원에 입원하여 조사하지 못했으나 같은 마을에서 함께 희생당했다고 단체 신청한 신청인 이기순이 신익성의 희생 사실을 진술하여 신청인 조사에 같음하였다.	신길성(주민, 당시 18세) • 신익성이 1949년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없이 1950년 7월 27일경 거창경찰서 경찰에 의해 권빈재에서 희생되었다. (참고인 신길성 진술서, 2009.03.21.)
	신성재	전학수(처남, 당시 15세) • 매형 신성재가 본인도 모르게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가 1950년 7월 중순경 밤에 경찰에게 연행되어 권빈재에서 희생되었고 시신은 수습하였다고 들었다. (신청인 전학수 통화보고서, 2009.09.10.)	김선욱(주민, 당시 18세) • 신성재가 본인도 모르게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가 1950년 7월 27일 권빈재에서 거창경찰서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다. (참고인 김선욱 진술서, 2009.03.25.)
	백종석 백종문	백종술(동생, 당시 22세) • 형 백종석, 백종문은 뼈라를 뿌린 사건 때문에 도망 다니다가 자수하고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 우리 마을에서는 형님 2분과 이월문, 백영복, 백무흠, 백봉흠이 보도연맹에 가입하여 희생되었다. • 형님들은 전쟁 발발 후에 경찰에게 끌려갔고 그 후로 소식을 모르다가 주상면 완대리 사람이 권빈재에서 사람들이 일렬로 총살당했다는 사실을 말해주어 바로 가서 백종문 형님의 시신은 수습했지만 백종석 형님의 시신은 수습하지 못하였다. (참고인 백종술 진술조서, 2008.04.17.)	박성하(주민, 당시 14세) • 경찰의 강압에 의해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가 권빈재에서 거창경찰서 경찰에 의해 총살되었다. (참고인 박성하 진술서, 2009.03.26.)
	이월문	이봉술(동생, 당시 15세) • 형 이월문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는지는 모르겠다. 전쟁 발발 후에 경찰에게 연행되어 거창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27일경 합천군 봉산면 권빈재에서 사살되었고 시신을 수습하였다. (참고인 이봉술 진술조서, 2008.04.16.)	백종술(주민, 당시 22세) • 우리 마을에서는 형님 2분과 이월문, 백영복, 백무흠, 백봉흠이 보도연맹에 가입하여 희생되었다. • 전쟁 발발 후에 경찰에게 끌려갔고 그 후로 소식을 모르다가 주상면 완대리 사람이 권빈재에서 사람들이 일렬로 총살당했다는 사실을 말해주어 바로 가서 시신을 수습하였다. (참고인 백종술 진술조서, 2008.04.17.)
	백무흠 백봉흠	백원두(백무흠의 아들, 당시 6세) • 아버지 백무흠과 숙부 백봉흠이 보도연맹에 가입하였고, 1950년 7월 19일 연행되어 거창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7월 27일 권빈재 혹은 마령재에서 희생되었다.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신청인 주요진술	참고인 주요진술
358	백무흠 백봉흠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월 27일 거창읍에 거주하던 고모가 아버지가 타고 있는 트럭이 거창읍 제1교 다리로 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사실소식을 듣고 권빈재와 마령재를 찾아다녔지만 시신수습은 하지 못하였다. (신청인 백원두 진술조서, 2008.04.17.) 	백이중(주민, 당시 1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수선한 시기에 본인도 모르게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가 1950년 7월 27일 거창경찰서 경찰에 의해 권빈재에서 희생되었다. (참고인 백이중 진술서, 2009.03.20.)
	유응락	유현중(아들, 당시 3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 유응락이 경찰의 강제에 의해 보도연맹에 가입하였고 1950년 7월경 창고에 갇혀있다가 1950년 7월 27일 권빈재에서 희생되었고 시신은 수습하였다고 들었다. (신청인 유현중 진술서, 2009.09.09.) 	김선욱(주민, 당시 18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응락이 대동청년단장(박영보)의 눈밖에 나서 보도연맹에 가입하였으며 1950년 7월 27일 거창경찰서 경찰에 의해 권빈재에서 희생되었다. (참고인 김선욱 진술서, 2009.03.22.)
	류재하	김인숙(며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아버지 류재하가 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누군가가 시킨 심부름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경찰에 잡혀갔고 보도연맹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전쟁 발발 후 1950년 7월경 경찰에게 연행되어 거창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으며 1950년 7월 27일 권빈재에서 희생되었는데 시신수습은 하지 못했다고 들었다. (신청인 김인숙 통화보고서, 2009.09.09.) 	유인우(주민, 당시 18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류재하가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 없이 1950년 7월 27일 권빈재에서 희생되었다. (참고인 유인우 진술서, 2009.03.22.)
	이희구	이기일(아들, 당시 3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 이희구가 보도연맹에 가입하였고 1950년 7월 19일 경찰에게 연행되어 은행창고에 구금되었다가 7월 27일 권빈재에서 총살되었고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들었다. (신청인 이기일 통화보고서, 2009.09.09.) 	이희철(8촌동생, 당시 1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희구가 본인도 모르게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1950년 7월 27일 권빈재에서 희생되었다. (참고인 이희철 진술서, 2009.03.22.)
	양개이	양기석(아들, 당시 1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 양개이가 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1950년 7월경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게 연행되어 경찰서 옆 창고에 구금되었다가 7월 27일 권빈재에서 희생되었고 시신은 수습하였다고 들었다. (신청인 양기석 통화보고서, 2009.09.10.) 	양건우(주민, 당시 17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개이가 경찰에 의해 강제로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가 법적 절차 없이 1950년 7월 27일 권빈재에서 거창경찰서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다. (참고인 양건우 진술서, 2009.03.25.)
	박순억	옹금례(부인, 당시 2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편 박순억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는지는 모르고, 7월 14일 경찰에게 연행되어 거창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7월 21일경 장소불상에서 희생되었으며 시신수습은 못하였다. (신청인 옹금례 진술조서, 2009.07.21.) 	구정기(주민, 당시 2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순억이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 없이 1950년 7월 27일 권빈재에서 희생되었다. (참고인 구정기 진술서, 2009.03.22.)
	백영복	백영선(동생, 당시 27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이 사망하여 신청인의 딸 백종숙(미출생)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제 6 권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신청인 주요진술	참고인 주요진술
358	백영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중숙은 “큰아버지 백영복이 국민보도연맹원을 소집할 때 주상지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거창 경찰서에 약 6~7일 정도 구금되었다가 권빈재에서 총살당했으며, 시신은 겨우 수습하였다.”는 것을 아버지와 친척들에게 들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백중숙 진술조서, 2009.07.22.) 	
	이윤중	<p>이처분(부인, 당시 25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 이윤종과 시숙 이덕종이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트럭에 실려 가는 것을 보았고 현 거창군청 인근 창고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27일경 트럭에 실려 나가 권빈재에서 희생되었다. 그때 참고인인 권빈재에서 생존한 이○○로부터 사할소식을 듣고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하였다. 남편 사망소식 때문에 놀라서 어린 아이도 사망하였다. • 남편이 보도연맹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으며 생전에 지서에서 대창을 들고 있기도 하였다. (신청인 이처분 진술조서, 2009.07.21.) 	<p>이창식(주민, 당시 15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윤종이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 없이 1950년 7월 27일 권빈재에서 희생되었다. (참고인 이창식 진술서, 2009.03.22.)
	어문우	<p>어윤화(조카, 미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촌 어문우가 1950년 7월 19일 가조지서 경찰과 함께 나간 후 희생되었는데 아마도 좌익활동을 했던 마을 주민 어문우와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실수로 연행된 것 같다고 들었다. • 숙부는 상업은행 창고에 구금되었다가 7월 27일경 권빈재에서 희생되었고 가족들이 현장에 갔으나 부패가 심해 시신수습은 하지 못하였다고 들었다. (신청인 어윤화 진술조서, 2008.04.16.) 	
	주재근	<p>장현애(부인, 당시 23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 주재근이 전쟁 나고 여름에 누군가에게 불려서 나간 후 거창경찰서 옆 상업은행 창고에 2~3일간 구금되었다가 쓰리쿼터에 실려 7월 21일 합천군 묘산면 마령재에서 희생되었다. 한 달 후에 직접 현장에 갔는데 부패가 심하여 시신수습은 하지 못하였다. (신청인 장현애 진술조서, 2008.04.16.) 	<p>이현철(주민, 당시 11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재근이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1950년 7월 21일 마령재에서 거창경찰에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다. (참고인 이현철 진술서, 2009.03.22.)
	엄차술	<p>엄명균(손자, 미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아버지 엄차술이 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1950년 7월 19일경 경찰에게 연행되어 거창경찰서 옆 창고에 구금되었다가 7월 21일 마령재에서 희생되었고 시신을 수습하였다. (신청인 엄명균 진술서, 2009.09.10.) 	<p>신성범(주민, 당시 23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 신순범이 신원면 양지리 양지마을 구장을 할 당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형 신순범을 포함하여 신원면 19명이 연행되어 거창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형 신순범과 손기두는 석방되었고, 나머지 17명은 희생되었다. 희생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신청인 주요진술	참고인 주요진술
358	엄차술		<p>자 중에 신윤성, 엄차술, 엄판용, 정상술 등이 기억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신원면장은 박영보였는데 보도연맹 가입을 종용한 것은 청년단이었다. 청년단은 뼈라 등이 발견되면 마을 주민들을 조사한다는 핑계로 엄청난 고문과 폭력을 행사하였다. 기억나는 청년단원은 김성출, 박영보, 김희재, 김오준 등이다. • 아마도 전쟁 후에 진행된 19명은 청년단에 순응하지 않은 사람들일 것이다. 연행자들은 거창경찰서 유치장과 농협창고에 구금되었다가 7월경 권빈재, 마령재에서 희생되었다. • 당시 신원지서 근무자 중 기억나는 사람은 지서주임 김차갑(경사)과 박복식(순경)이다. (참고인 신성범 진술조서, 2009.03.18.) <p>김말분(조카, 당시 9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차술이 경찰 눈 밖에 나서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가 1950년 7월 21일 거창경찰서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다. (참고인 김말분 진술서, 2009.03.19.)
3066	이구관	<p>이상모(아들, 당시 15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이구관은 일제시대에 교회 내 독서회에서 비밀 항일운동을 하기도 하였다. 해방 후에는 신원면장을 지냈던 경력이 있고 조선민족청년단 거창군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아버지는 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았고 예비검속된 경우이다. • 전쟁 발발 후 경찰에게 연행되어 농협창고에 약 한달 동안 구금되었고 구금기간동안 매일 도시락을 배달하여 아버지를 직접 면회하였다. 제사를 지내지 않아 사망일은 정확히 모르지만 양력 7월경에 권빈재에서 희생되었고, 시신을 수습하였다. (신청인 이상모 진술조서, 2008.04.17.) 	<p>유기준(주민, 당시 15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모의 아버지가 신원면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는데 전쟁 발발 후 7월경에 연행되어 거창읍에 구금되었다가 권빈재에서 희생된 것으로 알고 있다. 보도연맹에 가입했는지는 모르겠다. (참고인 유기준 진술조서, 2009.03.19.)
3090	신위흥	<p>신용달(딸, 당시 20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신위흥은 김봉택으로부터 국가시책에 동조하기 위해 보도연맹에 가입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보도연맹에 가입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1950년 7월 11~12일경 마리지서 경찰이었던 남편으로부터 보도연맹원 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나갔으며 집에 돌아오지 않자 지서에 갔더니 거창으로 갔다는 말을 들었다. 아버지와 김봉택은 거창경찰서 인근 창고에 구금되었다 	<p>신용은(신위흥의 딸, 당시 5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신위흥과 김봉택이 보도연맹에 가입하였고, 전쟁 발발 후에 거창경찰서 소집연락을 받고 나갔으며 약 3일 동안 구금되었다가 7월 21일 마령재에서 희생되었다. 이후 가족들이 마령재로 찾아가 옷을 보고 시신을 수습하였다. (참고인 신용은 진술조서, 2008.12.10.)

제 6 권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신청인 주요진술	참고인 주요진술
3090	신위홍	가 7월 21일경 마령재에서 희생되었다. 남편도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실지 몰랐다고 하였다. 약 1달뒤에 현장에 가서 시신수습을 하였는데 부패가 심해 김봉택은 시신수습을 못하였고, 아버지의 시신은 수습하였다. 당시 현장에는 약 25구의 시신이 있었다. (신청인 신용달 진술조서, 2009.03.31.)	
3725	김봉택	김동오(아들, 당시 6세) • 아버지 김봉택과 신흥범(신위홍)이 보도연맹 가입도장을 찍었으며 1950년 7월경 거창경찰서로 오라는 말을 듣고 나갔다가 거창경찰서에 약 3일간 구금되었다. 구금기간 동안 밥을 날랐는데 3일째 경찰이 ‘벌써갔다’는 말을 하였고 7월 21일경 마령재에서 희생되었다는 소문을 접하고 현장에 갔으나 시신의 부패가 심해 수습하지는 못하였다. (신청인 김동오 진술조서, 2008.12.10.)	신용달(주민, 당시 20세) • 아버지 신위홍과 김봉택이 국민보도연맹원 소집 때 연락을 받고 나간 후 거창경찰서 인근 창고에 구금되었다가 합천군 묘산면 마령재에서 함께 희생되었다. (신청인 신용달 진술조서, 2009.03.31.)
5335	신종우	신선규(아들, 당시 18세) • 아버지 신종우는 일제시기에 농민회사건으로 교도소에 복역한 적이 있고 신간회 거창군 위원을 했다.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을 했으며, 전국농민회 거창군 간사 활동으로 피해다니다가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 • 1950년 7월 중순경 거창경찰서 경찰들에게 연행되어 거창경찰서에 약 1주일간 구금되었다가 7월 21일 마령재에서 1차로 희생되었다. 8월 초에 사망소식을 듣고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하였다. (신청인 신선규 진술조서, 2008.03.28.)	윤종목(주민, 당시 24세) • 신종우와 본인의 아버지가 전쟁 발발 후에 거창경찰서 경찰에 의해 함께 연행되어 구금되었다가 마령재에서 희생되었다. 신종우의 가족과 함께 가서 신종우의 시신은 수습하였으나 아버지의 시신은 찾지 못하였다. 시신수습 당시 시신은 약 30여구가 있었다. (참고인 윤종목 진술조서, 2009.03.19.)
6644	임재만	임재춘(동생, 당시 8세) • 뽕치산이 동네를 급습하여 집을 저다 달라고 하여 저다준 것이 부역으로 몰려 경찰의 감시를 받아오다가 전향서를 쓰고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 후 1950년 7월 19일 경찰에 강제로 연행되어 상업은행창고에 구금되었다가 동년 7월 27일에 합천군 봉산면 권빈재에서 경찰에게 사살되었다. (신청인 임재춘이 사망하여 진실규명신청서를 요약하였다.)	이외주(제수, 당시 8세) • 시숙 임재만이 산사람들의 집을 저준 일 때문에 1949년 가을 경 전향서를 강제로 작성하고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고 들었다. 전쟁 나고 7월 18일경 경찰에게 연행되어 상업은행 창고에 구금되었다가 7월 27일 권빈재에서 희생되었다. 시신을 수습하고자 하였으나 수습하지 못하였다고 들었다. (참고인 이외주 진술조서, 2008.04.17.) 이재건(주민, 당시 22세) • 임재만이 1948년 북상지서 습격사건에 연루되어 나중에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 전쟁이 난 줄도 모르고 모내기를 하던 중에 경찰들에게 연행되어 권빈재에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인 이재건 진술조서, 2009.03.18.)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신청인 주요진술	참고인 주요진술
7236	박광남	<p>박현로(조카, 미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부 박광남이 보도연맹 사건으로 1950년 7월 27일 권빈재에서 희생되었다고 들었다.(신청인이 제출한 진실규명신청서를 요약하였다.) 	<p>박광옥(동생, 당시 10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 박광남이 보도연맹에 가입하여 1950년 7월 초에 집을 나가 거창읍 농협창고에 약 10일 동안 구금되었다가 7월 27일 권빈재에서 희생되었다. • 구금기간 동안 매일 면회를 하였으며 7월 27일 아침에 모친과 함께 형 면회를 갔다가 형이 트럭에 실려 가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쳤으나 그대로 가버렸다. • 그리고 약 10여일 후에 사망소식을 듣고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하였다. <p>(참고인 박광옥 진술조서, 2008.10.22.)</p>
8382	박석봉	<p>박경자(딸, 당시 10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박석봉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1950년 어느 날 몇몇이 부친을 연행하여 나간 후로는 행방불명되었다. 이후 연행된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모가 현장에 갔다. <p>(신청인 박경자 진술조서, 2008.04.30.)</p>	<p>박삼준(동생, 당시 19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 박석봉이 좌익사상을 가졌던 구장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 다니다가 자수하여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 전쟁 발발 후에 연행되어 농협창고에 구금되었다가 7월 27일 권빈재에서 희생되었다. • 당시에 형과 함께 구금되었다가 현장에서 생존한 형님 친구에 따르면 경찰은 2명씩 묶어서 트럭에 태웠는데 형님 친구는 아무래도 이상한 낚새를 채고 허리띠 바클을 이용하여 줄을 끊었다고 하였다. • 그리고 권빈재에서 경찰이 트럭에서 내리라고 한 뒤에 계곡으로 올라가라고 하자 형님 친구가 ‘다 죽는다 도망가자’해서 사람들이 도망치려 하였으나 경찰이 총을 쏘고 두사람씩 묶어 있어서 도망가지도 못하여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았다고 하였다. • 줄이 풀렸던 형과 형 친구는 도망가다가 형은 약 100m 남짓에서 총에 맞아 죽고 형 친구는 살아남아 우리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해 주었다. 생존자인 형 친구는 그 후 인민군 치하시기에 치안대장을 하다가 미군의 기총소사에 사망하였다. <p>(참고인 박삼준 진술조서, 2009.07.03.)</p>
8386	임기식	<p>임현중(아들, 당시 1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임기식이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희생되었다고 어머니께 들었다. 전쟁 직후 경찰은 마을 청년 여러 명을 연행된 후에 고령에 있는 산속에서 집단 학살하였고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다. <p>(신청인 임현중 진술조서, 2008.07.30.)</p>	<p>임기술(주민, 당시 13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식은 먼 친척인데 나이는 20대 후반이었다. 1948년 거창 5.8사건(좌익들이 북상면 지서와 면사무소 습격한 사건)에 연루되어 보도연맹에 가입한 것으로 안다. 전쟁이 난 후 북상지에서 보도연맹원들을 소집하여 합천 권빈재에서 사살했다고 알고 있다. 북상면에서도 10명이 넘게 잡혀간 것으로 안다. <p>(참고인 임기식 통화보고서, 2009.09.21.)</p>

나) 주요 참고인 조사(경찰, 생존자, 목격자, 시신수습자 등)

진실화해위원회는 거창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경남지방경찰국, 거창경찰서 소속 경찰, 의용경찰을 중심으로 가해측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희생현장인 합천군 봉산면 권빈재에서 생존한 생존자, 상업은행 창고¹⁰⁾(현 국민은행 거창지점)에 보도연맹원들이 구금된 사실을 목격한 목격자, 희생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한 자들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은 <표 3>과 같다.

<표 3> 주요 참고인 진술내용

성명 (당시 나이)	사건 관련성	주요 진술내용
이○○ ¹¹⁾ (20세)	경남경찰국 감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경찰국 감찰과에 근무할 당시 6.25가 발발했다. 경남경찰국에서 보도연맹원 처리와 관련하여 일선경찰서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거창으로 내려와 확인한 결과 거창경찰로부터 20~30여 명을 처리했다는 들었다. 경찰국에서는 갑(甲)만 처리하라고 했는데 일선 경찰서에서 전부 다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도연맹은 적색분자들을 대상으로 가입시킨 단체인데 나중에는 적색분자가 아닌 사람들도 다수 가입시켰다.
○○○ ¹²⁾ (27세)	거창경찰서 사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5 때 거창경찰서 사찰계에 근무하였다. 사찰계에서는 남로당, 빨갱이, 좌익분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임무였다. 국민보도연맹은 빨치산에 부화뇌동한 사람들, 뼈라를 뿌린 사람들, 양식을 제공한 사람들, 좌익단체에 가입했던 사람들을 교화시키려고, 좌익들하고 단절시키려고 만든 단체이다. 하지만 경찰하고 사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가입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경찰에는 요시찰인 명부가 있어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보도연맹에 가입시켰다. 각 면별로 요시찰인 담당이 있었다. 경찰이 명단을 올리면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도연맹원이 되기도 하였다. 거창보도연맹원들은 100명은 넘었다. 전쟁이 발발한 후 사찰주임 배두용에게 보도연맹원들을 모두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경남도경에서 전통이 오고 경찰서장의 지시 하에 사찰주임이 지시했던 것으로 안다. 거창경찰서 유치장에 10여 명, 양조장에 3~40여 명을 구금했다. 나하고 한 집에 살던 사람이 양복점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보도연맹 명단에 올려 놓았다. 그 사람을 내가 살려주었다. 보도연맹원들을 구금하고 합천군 권빈재에서 사살한 것은 사찰계이며, 사찰주임은 현지에서 확인했을 것이다. 사찰계 형사로서 유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권빈재에서 대고모 아들과 일가 한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으로 안다.
○○○ ¹³⁾ (25세)	거창경찰서 수사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연맹은 좌익계열 사람들을 가입시킨 것이며 사찰계에서 담당했다. 6.25때 충청도, 경기도 경찰들이 후퇴하면서 보도연맹원들이 난동을 하여 일선경찰서에서 처리하고 왔다는 말을 들었다. 거창보도연맹원 구금 장소는 경찰서 유치장, 상업은행 창고, 양조장 창고 등이었다. 보도연맹원들은 서장의 지시로 사찰주임의 책임 하에 합천군 봉산면 권빈재에서 처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10) 참고인 중 보도연맹원 구금장소를 상업은행 창고, 농협창고, 산업창고 등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동일한 장소에 대해 명칭을 다르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사건 당시 상업은행 창고로 확인되었다.

성명 (당시 나이)	사건 관련성	주요 진술내용
김○○ ¹⁴⁾ (22세)	신원지서 의용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창군 신원면에서 의용경찰을 했다. 신원면에서는 사찰계 주임 유봉순이 주민들을 신원국민학교에 모아놓고 빨치산에게 쌀을 주거나 협조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은 자수하고, 보도연맹에 가입하라고 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입했다. 신원면 보도연맹원들이 트럭에 실려 거창경찰서로 가는 것을 목격했다. 죄가 가벼운 사람은 며칠 후에 돌아오고 무거운 사람들은 권빈재로 끌려가서 죽었다.
안○○ ¹⁵⁾ (22세)	거창군 경우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창보도연맹원들이 합천군 봉산면 권빈재에서 많이 희생되었다는 말을 거창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들어서 알고 있다.
이○○ ¹⁶⁾ (24세) ¹⁷⁾	권빈재 현장생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26년 거창군 고제면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랐으며, 고등소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다가 해방이 되자 귀국하여 거창군 주상면에 살았다. 마을 구장이던 이주택이 민애청에 가담시켰는데, 어느 날 민애청 조직책이 잡혀 가입자들이 거창경찰서에 잡혀가 한 달 동안 구류를 살았다. 이후 지사에서 보도연맹에 가입하라고 하여 가입하였다. 6.25 발발 후 주상지서 차석과 경찰 1명이 나오라고 하여 따라갔다. 경찰은 주상지서에 있던 몇 사람과 함께 양조장 차에 태우고 거창군에 있는 양조장 창고에 구금시켰는데, 창고에는 약 20명이 있었다. 다음날 아침 창고에 있던 사람들 모두 고개를 숙이게 한 후 버스에 태워 권빈재로 갔다. 권빈재에 도착한 후 사람들을 두 줄로 세워 데려갔는데 작은 도랑을 건너자 신발을 모두 벗으라고 한후 허리띠를 빼서 앞 사람을 뒷 사람이 묶으라고 했다. 그때 고제면에 살던 이윤종이를 내가 묶고 이윤종의 형 이덕중이 나를 묶었다. 사람들을 묶고 딱 붙여, 좁혀하는 소리가 날 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흘끔 쳐다보니까 경찰이 전투모에 힌트를 두르고 있었다. 그 경찰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다. 경찰들이 총을 쏘았는데 덩치가 큰 덕중이, 윤종이 형제가 내 몸 위로 쓰러졌다. 총을 쏘고 난 후 조금 있다가 움직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총을 쏘는 소리를 들었다. 1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동시에 총을 맞고 죽었다. 사살현장에서 나오다가 큰길가에 서 고제면 사람들이 피난 가는 것을 보았다. 이들 만에 집에 돌아오니 인민군이 들어왔다.
김안정 ¹⁸⁾ (21세)	가북면 방위장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은 전쟁 발발 당시 가북면 방위장교로 근무하였다. 이구관이 연행되자 유봉선 거창경찰서 사찰계장에게 부탁하여 직접 면회를 하였다. 당시 이구관은 현 국민은행 거창지점 자리에 있는 창고에 구금되어 있었고 창고에 구금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구관씨는 신원면장도 하고 자유당 전신인 국민회 활동도 하였기 때문에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성격이 강직하여 누가 밀고했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보도연맹원들은 거창읍에서 약 40리에 있는 권빈재에서 희생되었다.
윤종묵 ¹⁹⁾ (24세)	마령재 시신 수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종우와 본인의 아버지가 전쟁 발발 후에 거창경찰서 경찰에 의해 함께 연행되어 거창읍의 창고에 약 1주일간 구금되었다가 마령재에서 희생되었다. 시신수습을 하기 위해 신종우의 가족과 함께 가서 신종우의 시신은 수습하였으나 아버지의 시신은 찾지 못하였다. 시신수습 당시 시신은 약 30여 구가 있었다.

11) 참고인 이○○ 면담보고서, 2009.08.27.

12) 참고인 ○○○ 진술조서, 2009.08.27.

13) 참고인 ○○○ 진술조서, 2009.08.27.

14) 참고인 김○○ 면담보고서, 2009.08.27.

15) 참고인 안○○ 면담보고서, 2009.08.27. 6.25때는 합천군 쌍책면에서 면서기를 했으며, 1951년 이후 거창경찰서에서 근무했다.

나. 조사결과

1) 거창 국민보도연맹 결성, 가입경위 및 활동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국민보도연맹 거창군연맹의 조직구성, 규모, 결성일자 등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진실규명대상자들이 거창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좌익단체에 가입했거나 좌익활동 혐의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²⁰⁾ 현 장생존자 이○○는 좌익단체인 민애청에 가입했다가 거창경찰서에 한달 정도 구금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²¹⁾, 진실규명대상자 신종우는 해방전 낙동강 농민회 사건으로 진주형무소에 수감된 적이 있으며, 신간회 거창군 위원 활동을 했고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을 했으며, 전국농민회 간사 활동으로 경찰을 피해다니다가²²⁾, 백종석, 백종문은 뼈라를 뿌린 사건으로²³⁾, 임재만은 빨치산의 짐을 져다준 일로²⁴⁾, 엄판용은 좌익사상에 심취해 있던 사촌형님 때문에 신원지서에서 조사를 받고 보도연맹에 가입했다²⁵⁾고 했다. 또한 신원면에서는 사찰주임 유봉순이 마을 사람들을 학교에 모아 놓고 빨치산에게 쌀을 주거나 협조했던 사람들은 자수하고 보도연맹에 가입하라고 하여 가입한 경우도 있었다.²⁶⁾

둘째, 개인적 감정 및 갈등(정치적 라이벌) 때문에 보도연맹에 가입되거나 희생된 경우이다. 사찰계 형사 ○○○의 진술에 따르면 한 집에 살던 사람이 양복점을 했었는데 경찰들이 공짜로 옷을 고쳐달라고 할때 잘 안 고쳐주니까 경찰들이 저 사람 빨갱이다 하면서 보도연맹에 명단을 올렸다. 그런데 6.25가 발발했을 때 내가 살려주어야 한다고 해서 살아났다²⁷⁾라고 했으며, 진실규명대상자 광천섭은 우익청년단체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²⁸⁾,

16) 참고인 이○○ 진술조서, 2009.07.22.

17) 호적에 1923년생으로 되어있으나 본래 1926년생이라고 한다.

18) 참고인 김안정 진술조서, 2009.03.19.

19) 참고인 윤종묵 진술조서, 2009.03.19.

20) 그러나 진실규명대상자들에 대해 행형기록을 대조해 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21) 참고인 이○○ 진술조서, 2009.07.22.

22) 신청인 신선규 진술조서, 2008.03.28.

23) 참고인 백종술 진술조서, 2008.04.17.

24) 참고인 이외주 진술조서, 2008.04.17.

25) 신청인 엄창주 진술조서, 2008.04.16.

26) 참고인 김○○ 면담보고서, 2009.08.27.

27) 참고인 ○○○ 진술조서, 2009.08.20.

이구관은 우익단체인 조선민족청년단 거창군위원장을 했는데, 면장 재직시기 박영보 부면장과 사이가 안 좋았고 이승만 지지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²⁹⁾ 희생되었다고 진술했다.

셋째, 진실규명대상자 본인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모르거나 강제 가입한 경우이다. 진실규명대상자 신성재, 이희구는 본인도 모르게 보도연맹에 가입되었으며, 백종석, 백종문 형제, 양개이 등은 경찰에 의해 강제로 보도연맹에 가입당한 경우이다. 이러한 사실은 신청인 및 신청인 측 참고인들의 진술에서 알 수 있다.³⁰⁾

진실규명대상자들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거창경찰서 수사계 경찰 ○○○는 국민보도연맹은 ‘지방 유지들, 똑똑한 사람들, 지식계층, 좌익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가입’했다고 진술했다.³¹⁾ 특히 국민보도연맹을 직접 담당했던 사찰계 경찰 ○○○는 아래와 같은 진술을 통해 앞의 참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³²⁾

“국민보도연맹은 빨치산에 부화뇌동한 사람들, 행동을 함께 한 사람들, 뼈라를 붙인 사람들, 양식을 제공한 사람들, 좌익단체에 가입했던 사람들을 교화시키려고, 좌익들하고 단절시키려고 만든 단체가 보도연맹입니다. 저쪽으로 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보도연맹원은 전부다 직접적인 빨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하고 사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들을 가입시키기도 … 경찰이 명단을 올리면 가입이 됩니다. 전부터 우리 사찰계에는 요시찰인명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도연맹을 가입시킨 것입니다. 각 면별로 요시찰인 담당이 있었습니다. 경찰서 관내는 사찰계에서 담당하고 지서는 주임 책임 하에 관리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거창 국민보도연맹원은 좌익활동 경력자, 경찰이나 우익단체 인사와 사적 감정다툼이 있던 자,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경찰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강제로 가입 시킨 자 등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거창 국민보도연맹이 군(郡)이나 면(面) 단위에서 특정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

28) 참고인 광재섭 진술조서, 2009.03.18.

29) 참고인 이상모 진술조서, 2008.04.17.

30) 신청인 전학수 통화보고서, 2009.09.10.; 참고인 김선옥 인우보증서, 2009.03.25.; 참고인 백종술 진술조서, 2008.04.17.

31) 참고인 ○○○ 진술조서, 2009.08.13.

32) 참고인 ○○○ 진술조서, 2009.08.20.

2) 예비검속 및 희생경위

신청인 및 참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하자 진실규명대상자들이 거창경찰서, 각 지서 경찰에게 소집 혹은 연행되어 거창경찰서 유치장, 상업은행창고(현 국민은행 거창지점), 양조장(현 농협중앙회 거창지회 맞은편)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21일 합천군 묘산면 마령재, 1950년 7월 27일 봉산면 권빈재 등에서 거창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사살되었으며 유족 중 시신을 수습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였다.³³⁾

신원면의 경우 신청인 엄창주는, '신원지서에서 보도연맹원을 호출하여 지서에 출석하였고, 트럭에 태워 거창경찰서로 이송한 후 거창읍에 있는 상업은행창고에 구금하였다가 1차로 7월 21일 합천군 묘산면 마령재에서 사살했으며, 2차로 7월 27일 합천군 봉산면 권빈재에서 사살했다고 한다. 당시 상업은행 창고에 구금되었던 사람 중 신원면에 거주하던 2명은 풀려나고 신청인의 부친 엄판용 등은 7월 27일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합천군 봉산면 권빈재에서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진술했다.³⁴⁾ 신청인 엄창주의 진술은 당시 신원지서에서 의용경찰로 근무했던 김○○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참고인 김○○ 또한 '신원지서에 있던 보도연맹원들이 트럭에 실려 거창방면으로 가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후 죄가 가벼운 사람은 며칠 후 돌아오고 무거운 사람은 권빈재로 끌려가서 죽었다'고 진술했다.³⁵⁾

마리면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신위홍, 김봉택은 마리지서에서 보도연맹원을 소집한다는 연락을 받고 나간 후 거창읍 소재의 창고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21일 경 합천군 묘산면 마령재에서 사망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했는데 진실규명대상자 신위홍을 지서로 출석하라고 연락한 사람은 신위홍의 사위이며, 신청인 신용달의 남편으로 당시 마리지서에서 근무했다. 신용달은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경찰이던 남편은 '보도연맹원들을 그렇게 죽일 줄 몰랐으며, 국군들이 잘 싸우고 있다는 문서가 왔다면서 아무 걱정도 안했다'고 했다. 아버지는 '같은 마을의 김봉택과 함께 소집되어 거창경찰서 인근의 창고에 구금되었었는데, 어느 날 창고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후 수소문하여 합천군 묘산면 마령재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했으나 아버지와 함께 끌려간 김봉택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고 진술했다.³⁶⁾

33) 참고인 엄창주 등은 권빈재에서, 신청인 신종우 등은 마령재에서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진술했다.

34) 신청인 엄창주 진술조서, 2008.04.16.

35) 참고인 김○○ 면담보고서, 2009.08.27.

36) 신청인 신용달 진술조서, 2009.03.31.

거창읍에 거주하던 신종우는 거창경찰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21일 합천군 묘산면 마령재에서 사살되었으며,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마령재에서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진술했다.³⁷⁾

고제면에 거주하던 신청인 이차분은 고제지서 순경들이 남편 이윤종과 시숙 이덕종을 잡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현장 생존자 이○○가 알려주어 권빈재에서 남편과 시숙의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진술했다.³⁸⁾

주상면에 거주하던 희생현장 생존자 이○○는 주상지서 경찰들의 호출을 받아 거창읍 소재 양조장 창고에 구금되었다가 합천군 봉산면 권빈재로 끌려갔다. 이○○는 사살 현장에서 총에 맞지 않고 살아났으며, 사살현장에서 이틀 후 집으로 돌아 왔을 때 인민군이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이○○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³⁹⁾

“해질 무렵 주상지서 민익균하고 김갑찬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김갑찬은 지서 차석이었습니다. …주상지서에서 서너 명을 더 태우고 도가차는 거창읍의 창고에 갔습니다. … 내가 잡혀간 다음날 아침이 되자 버스가 왔습니다. 버스가 오니까 창고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타라고 했습니다. …권빈재에 가니까 버스에서 내려놓고 앞으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두 줄로 서서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잡혀간 사람들에게 신을 모두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모두 벗었습니다. 그런 뒤에 허리띠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허리띠를 뺀 다음 앞 사람을 뒷사람이 묶으라고 했습니다. 앞 사람 손을 뒤로 한 후 허리띠로 묶고 또 다음 사람이 묶고 했습니다. 고제면에 살던 이윤종을 내가 묶고 나를 이윤종의 형 이덕종이가 묶었습니다. 사람들을 묶으니까 딱 붙여, 좁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흘끔 쳐다보니까 경찰이 있었습니다. 전투모를 쓰고 흰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경찰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 그때 총소리가 막 났습니다. 칼빈 총소리하고 예무원 총소리 하고 다른데, 두 가지를 다 쫓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던 내가 쓰러졌는데 내 몸 위로 덕종이하고 윤종이가 쓰러졌습니다. 내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러면서 피가 마구 쏟아졌는데 위에 있던 덕종이 윤종이 피가 쏟아지면서 나에게로 흘렀습니다. 내 위에 쓰러져 있던 사람들의 피가 마구 흘러 내려 내 입으로 들어가 그 사람들 피를 내가 먹었습니다. 나는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총을 쏘고 난 후 조금 있다가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총을 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꿈쩍하지 않고 있다가 모두 다 간 후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 그 사람들 가족이 살던 고제면에 가서 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덕종, 이윤종 형제들의

37) 신청인 신선규 진술조서, 2008.03.28.

38) 신청인 이차분 진술조서, 2009.07.21.

39) 참고인 이○○ 진술조서, 2009.07.22.

제 6 권

시신을 그 가족들이 찾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 시신이 있는 곳만 알려주었고 시신을 찾으러 권빈재로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마을에 인민군이 들어와 있을 때입니다.

거창 국민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자들이 한국전쟁 발발한 후 경찰에게 소집 혹은 연행되어 구금되었다가 집단 사살 당했다고 주장하는 신청인과 생존 참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거창경찰서에 근무했던 경찰 참고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창경찰서 수사계 경찰 ○○○는 국민보도연맹원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거창경찰서 유치장, 상업은행창고, 양조장 창고 등에 구금했다가 합천군 봉산면 권빈재에서 거창경찰서 사찰계 주도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황덕원씨는 자기 양조장 창고에 자기가 갇혔다가 나중에 풀려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⁴⁰⁾

그리고 거창경찰서 사찰계 경찰 ○○○는 국민보도연맹원 이○○가 권빈재 현장에서 생존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과 희생생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⁴¹⁾

“(경남도경에서 보도연맹원을 구금하라는 지시는) 전통으로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세부 지시내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당시 사찰주임 배두용이 사찰계 형사들을 모아놓고 보도연맹원들을 모두 잡아서 구금하라고 했습니다. 검거하라는 지시만 받았습시다. ... 거창경찰서 망루대(현재 적십자 병원자리)에 10여 명 정도 가두었고, 상업은행 창고(현재 국민은행) 자리는 잘 모르고, 거창읍 소재 황덕원씨 양조장 창고(현 국민은행 인근)에는 30~40여 명 될 겁니다.”

“(보도연맹원은)사찰계에서 사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거창에 군인이 주둔한 적이 없었고 보도연맹원들을 관리하고 구금한 것이 사찰계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내 상식으로는 서장은 없었고 사찰주임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서장이 지시는 했겠지만 현지에 따라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찰주임은 자기 책임이니까 현장에서 확인했을 겁니다. ... 사찰계 단독으로 하기에는 무리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부서의 지원을 받았을 겁니다. 안 받고는 안 됩니다.”

40) 참고인 ○○○ 진술조서, 2009.08.13.

41) 참고인 ○○○ 진술조서, 2009.08.20.: 참고인 ○○○는 국민보도연맹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난리통에 죽은 사람들에 대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죄익에 부역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중에는 사상적으로 틀린 사람도 있었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당시에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불찰도 있습니다. ... 당시 내가 보도연맹원들을 사살하는 현장에는 없었지만 사찰계 형사로 있으면서 사찰계가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유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한국전쟁 발발 후 거창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거창경찰서 사찰계 주도하에 소집 및 연행되어 거창경찰서 유치장, 상업은행 창고, 양조장 창고 등에 구금되었다가 합천군 묘산면 마령재, 합천군 봉산면 권빈재에서 거창경찰서 경찰에게 집단사살 당했다고 판단된다.

3) 희생자의 수와 신원

거창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전체 희생자 규모는 추정할 수 없다. 희생자의 수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주장에 따라 차이가 많았으며, 희생자 수를 추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 거창군의회 보고서의 경우 권빈재에서 28명, 마령재에서 7명이 희생되었다고 기록했으나 거창군의회 청원 건에 한정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경우도 신청인에 한해 조사하였기 때문에 거창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전체 희생자 규모를 추정할 수는 없다.

거창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중에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원을 확인한 희생자는 36명이고 이들은 대부분 거창군에 거주한 20~40대의 남성이었다. 희생자 확인은 시신수습을 한 경우,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사실을 목격하거나 전문(傳聞)을 통해 알고 있는 자의 진술을 확보한 경우, 거창군의회 보고서⁴²⁾에 기록된 경우로 하였다. 거창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과 확인 근거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거창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와 확인 근거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희생자					확인근거			확인여부
			성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당시 주소	참고인 진술	시신수습 여부	거창군의회 보고서	
1	79	곽동종 (郭東宗)	곽천섭 (郭天燮)	남	28~29	백부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번지미상	곽재섭	○	○	확인
2	358	엄창주 (嚴昌柱)	엄판용 (嚴判龍)	남	37	부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193	신성범 정경술 박현기	○	○	확인
3	358	곽재웅 (郭재웅)	곽환섭 (郭歡燮)	남	35	부	거창군 신원면 청수리 866	박현기	○	○	확인
4	358	김갑순 (金甲순)	김행두 (金行斗)	남	28	부	거창군 신원면 청수리	정경술 박현기		○	확인

42) 『한국전쟁 전후 거창군 관내 민간인 희생자 진상조사 보고서 거창군의회(청원심사특별위원회)』(2003. 3.)

제 6 권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희생자					확인근거			확인여부
			성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당시 주소	참고인 진술	시신 수습 여부	거창군 의회 보고서	
5	358	김상규 (金相圭)	김형진 (金炯進)	남	36	부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523	정경술 박현기	○	○	확인
6	358	김진섭 (金鎭燮)	김형규 (金炯圭)	남	32	부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1058	정경술			확인
7	358	김진규 (金眞圭)	김재규 (金在圭)	남	21	동생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1234	김일근		○	확인
8	358	이경애 (이경애)	김형문 (金炯文)	남	24	남편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번지미상	김진규 김선욱	○	○	확인
9	358	한정임 (한정임)	한만봉 (韓萬鳳)	남	23	부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번지미상	구정기			확인
10	358	이기순 (이기순)	박재준 (朴在俊)	남	20	남편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412	박영우		○	확인
11	358	도시분 (도시분)	신익성 (愼益晟)	남	31	남편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128	신길성		○	확인
12	358	전학수 (전학수)	신성재 (愼晟宰)	남	25	제부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02	김선욱		○	확인
13	358	백영인 (백영인)	백종석 (白鍾錫)	남	25	백부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728	박성하		○	확인
			백종문 (白鍾文)	남	24	백부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728	박성하	○	○	확인
14	358	이경희 (이경희)	이월문 ⁴³⁾ (李月文)	남	24	숙부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940	백종술	○	○	확인
15	358	유현중 (유현중)	유응락 (柳應落)	남	33	부	거창군 신원면 청수리 448	김선욱		○	확인
16	358	류동현 (류동현)	류재하 (柳在河)	남	30	부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698	유인우		○	확인
17	358	이기일 (이기일)	이희구 (李熙九)	남	31	부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1318	이희철			확인
18	358	양기석 (양기석)	양개이 ⁴⁴⁾ (梁介伊)	남	32	부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 539	양건우		○	확인
19	358	옹금례 (邕今禮)	박순억 (朴順億)	남	30	남편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735	구정기		○	확인
20	358	백영선 (백영선)	백영복 (白永福)	남	28	형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214	백종숙 구정기	○	○	확인
21	358	이차분 (李次粉)	이윤종 (李潤鍾)	남	40	남편	거창군 조제면 농산리 779	이창식	○	○	확인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희생자					확인근거			확인여부
			성명	성별	당시나이	신청인과의관계	당시주소	참고인진술	시신수습여부	거창군의회보고서	
22	358	백원두 (白源斗)	백무흠 (白武欽)	남	27	부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727	백종술 백이중		○	확인
23	358	백원두 (白源斗)	백봉흠 (白奉欽)	남	24	숙부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727	백종술 백이중		○	확인
24	358	어윤화 (魚允華)	어문우 (魚文愚)	남	25	숙부	거창군 가조면 석경리 860			○	확인
25	358	장현애 (章賢愛)	주재근 ⁴⁵⁾ (朱在根)	남	25	남편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49	이현철		○	확인
26	358	엄명균 (엄명균)	엄치술 (嚴且述)	남	41	조부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1647	신성범 김말분		○	확인
27	3066	이상모 (李相謨)	이구관 (李九管)	남	49	부	거창군 거창읍 동동 881	유기준	○		확인
28	3090	신용달 (慎鋪達)	신위흥 ⁴⁶⁾ (慎魏興)	남		부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796	신용은	○	○	확인
29	3725	김동오 (金東五)	김봉택 (金鳳鐸)	남	33	부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927	신용달			확인
30	5335	신선규 (慎鮮揆)	신종우 (慎鍾宇)	남	45	부	거창군 거창읍 동동 99-2	윤종묵	○		확인
31	6644	임재춘 (林載春)	임재만 (林載萬)	남	34	형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471	이외주 이재건			확인
32	7236	박현로 (朴鉉魯)	박광남 (朴光南)	남	29	백부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21	박광옥	○		확인
33	8382	박경자 (朴鏡子)	박석봉 (朴石奉)	남	31	부	거창군 거창읍 중동 1081	박삼준	○		확인
34	8386	임헌종 (林憲鐘)	임기식 (林基植)	남	20대 후반	부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209	임기술			확인
35	미신청		이덕종 ⁴⁷⁾	남	40대 초반		거창군 조제면 농산리	이○○	○		확인

43) 거창군의회 보고서에는 이을문으로 표기되었다.

44) 거창군의회 보고서에는 양개위로 표기되었다.

45) 거창군의회 보고서에는 주재권으로 표기되었다.

46) 거창군의회 보고서에는 신홍범으로 표기되었다.

47) 신청인 이차분은 남편 이윤중에 대해 진실규명신청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시숙 이덕종도 함께 희생당했다고 했으며, 생존자 이○○도 이윤중, 이덕종 형제가 함께 희생당한 사실을 진술했다.

4) 가해주체 및 가해의 지휘명령체계

거창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 희생 사건의 가해주체는 거창경찰서 소속 경찰로 판단된다.

신청인들은 진실규명대상자들이 거창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소집 혹은 연행되어 구금되었다가 합천군 소재의 권빈재, 마령재 등에서 사살되었다고 주장하며, 사건 당시 거창경찰서 소속 경찰 또한 신청인, 참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국민보도연맹의 주무 담당부서인 거창경찰서 사찰계 경찰 ○○○는 거창에서는 ‘경남경찰국의 지시에 따라 거창경찰서 사찰계가 주도적으로 국민보도연맹 희생 사건에 관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거창 국민보도연맹원 희생사건의 가해주체는 거창경찰서 소속 경찰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이러한 사살을 직접 지시한 가해주체 등 구체적인 지휘명령계통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 소결

거창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이 한국전쟁 발발 후 거창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소집 혹은 연행되어 거창경찰서 유치장, 상업은행 창고, 양조장 창고 등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21일 합천군 묘산면 마령재, 1950년 7월 27일 합천군 봉산면 권빈재에서 집단적으로 사살당했다고 신청한 사건은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결과 사실로 판단된다.

거창 국민보도연맹원 사살에 관여한 가해주체는 거창경찰서 소속 경찰로 판단되며, 사살의 구체적인 지휘명령계통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거창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의 전체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한 희생자는 곽천섭(郭天燮), 엄판용(嚴判龍), 곽환섭(郭歡燮), 김행두(金行斗), 김형진(金炯進), 김형규(金炯圭), 김재규(金在圭), 김형문(金炯文), 한만봉(韓萬鳳), 박재준(朴在俊), 신익성(愼益晟), 신성재(愼晟緯), 백중석(白鍾錫), 백중문(白鍾文), 이월문(李月文), 유응락(柳應落), 류재하(柳在河), 이희구(李熙九), 양개이(梁介伊), 박순억(朴順億), 백영복(白永福), 이윤중(李潤鍾), 백무흠(白武欽), 백봉흠(白奉欽), 어문우(魚文愚), 주재근(朱在根), 엄차술(嚴且述), 이구관(李九管), 신위흥(愼魏興), 김봉택(金鳳鐸), 신중우(愼鍾宇), 임재만(林載萬), 박광남(朴光南), 박석봉(朴石奉), 임기식(林基植), 이덕중(米德淸) 등 36명이다.

3. 산청 국민보도연맹 사건

가. 조사개요

1) 신청인 접수 현황

신청인 이귀순(다-273호) 등 17명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경상남도 산청군에 거주하고 있었던 진실규명대상자들이 국민보도연맹원 혹은 인민군에 동조할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예비검속되어 1950년 7월경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본통고개, 산청읍 지리 안개골, 산청읍 내리 마당머리, 산청읍 내리 쌀고개 앞⁴⁸⁾, 산청읍 신안면 외송리 장소불상 등지에서 희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조사 개시된 사건 중 산청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분류된 17건의 상황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신청인 접수 현황

연번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진실규명대상자				
				성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당시 주소
1	2005.12.21.	273	이귀순(李貴順)	이성실(이성실)	남	24	오빠	산청군 신안면 문대리 682
2	2005.12.27.	361	민영화(閔泳和)	민을호(閔乙鎬)	남	36	부	산청군 금서면 특리 455
				민경생(閔慶生)	남	41	친척	산청군 금서면 특리 443
				민상호(閔相鎬)	남	39	친척	산청군 금서면 특리 477
3	2005.12.28.	375	홍상택(洪祥澤)	홍인수(洪寅洙)	남	26	형	산청군 오부면 중촌리 706
4	2006.01.09.	558	박동석(朴東碩)	박호조(朴好祚)	남	30	부	산청군 신안면 문대리 507
5	2006.05.02.	3390	배창근(裴昌根)	배차수(裴且壽)	남	41	부	산청군 생초면 하촌리 643
6	2006.05.10.	3463	이한준(李漢俊)	이또상(李又相)	남	42	부	산청군 오부면 왕촌리 411
7	2006.05.29.	3761	문종길(文宗吉)	문정석(文正碩)	남	43	3종조부	산청군 산청읍 목곡리 430
				김수연(金壽漣)	여	31	3종조모	산청군 산청읍 목곡리 430
				문홍국(文洪國) 49)	남	3	3종숙부	산청군 산청읍 목곡리 430

48) 지역주민들의 경우 쌀고개 혹은 썰고개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신청인, 참고인들의 경우 싸릿고개 등으로 진술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가장 많이 불리는 쌀고개로 칭한다. 특히 새고개로 진술한 경우도 있으나 산청군 신안면 소재의 새고개는 쌀고개와는 다른 장소에 있다.

제 6 권

연 번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진실규명대상자				
				성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 의 관계	당시 주소
7				민영조(閔永祚 ⁵⁰⁾)	여	34	백모	산청군 산청읍 목곡리 329
				문대주(文大柱)	남	3	종제	산청군 산청읍 목곡리 329
				노우분(盧又紛 ⁵¹⁾)	여	33	모	산청군 산청읍 목곡리 330
				문인주(文仁柱)	남	1	동생	산청군 산청읍 목곡리 330
				문성주(文成柱)	남	1	재종제	산청군 산청읍 목곡리 328
				金氏 ⁵²⁾	여	20대 후반	종숙모	산청군 산청읍 목곡리 330
				문국현(文國鉉)	남	29	3종조	산청군 산청읍 목곡리 324
8	2006.07.21.	4389	정태호(정태호)	김종만(金鍾萬)	남	27	장인	산청군 시천면 반천리 486
9	2006.09.25.	5259	최경순(崔敬順)	최종환(崔宗煥)	남	28	부	산청군 단성면 입석리 747
10	2006.09.25.	5260	김순자(金순자)	김성진(金聖辰)	남	26	부	산청군 시천면 반천리 102
11	2006.11.01.	6458	김옥남(金玉南)	이상대(李相大)	남	31	시숙	산청군 산청면 옥동리 341
12	2006.11.24.	7718	정임례(정임례)	권재도(權載道)	남	27	시숙	산청군 단성면 입석리 658
13	2006.11.30.	8314	이월상(이월상)	정정근(鄭貞根)	남	38	장인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415
14	2006.11.30.	8318	노한준(盧漢俊)	노상식(盧相植)	남	25	부	산청군 오부면 오전리 446
15	2006.11.30.	8319	강재신(姜在信)	강철판(姜招判)	남	40	부	산청군 산청면 목곡리 325
16	2006.11.30.	8467	노성균(盧成均)	노을상(盧乙相)	남	36	조부	산청군 생초면 구평리 594
17	2006.11.30.	9784 (1)	하학선(河學善)	하재문(河載文)	남	22	숙부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594

2) 조사내용

가) 신청인 및 신청인 측 참고인 조사

신청인 및 신청인 측 참고인의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 49) 신청서에 출생 미신고로 기재되었다.
- 50) 신청서에 임신부로 기재되었다.
- 51) 신청서에 임신부로 기재되었다.
- 52) 신청서에 문성주의 모(母)라고만 기재되었다.

〈표 6〉 신청인 및 신청인 측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신청인 주요진술	참고인 주요진술
273	이성실	<p>이귀순(동생, 당시 10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빠 이성실이 보도연맹원으로서 1950년 7월 19일경 경찰에게 연행되어 산청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행방불명되었으며 이후 본통고개에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문을 접하고 현장에 갔는데 시신수습은 못하였다. • 이성실은 당시 좌익활동을 했던 마을 주민(박원조)과 친하게 지내서 심부름을 해준 것 때문에 죽은 것으로 알고 있다. • 7월 19일 오빠가 아버지와 함께 논일을 하고 있는데 박원조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오빠를 데리고 갔다. 이후 부모님이 산청경찰서로 면회를 갔지만 얼굴을 보지 못하였고 다음날 경찰서가 비워진 것을 확인했으며 본통고개에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가보니 구덩이가 3개였다고 한다. 그러나 오빠의 시신은 찾지 못하였다. <p>(신청인 이귀순 진술조서, 2009.05.26.)</p>	<p>이재석(주민, 당시 22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주민인 이성실, 박원조, 윗마을 박호조가 보도연맹으로 전쟁 발발 후에 논일을 하다가 경찰에게 연행되었고 이중 이성실과 박호조가 행방불명되었는데 소문에는 생조면 본통고개에서 죽었다고 들었다. • 박원조(참고인의 외삼촌)는 산청경찰서로 이송된 후 풀려났다. <p>(참고인 이재석 진술조서, 2009.05.26.)</p>
361	민을호 민경생 민상호	<p>민영석(민경생의 아들, 당시 12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화의 아버지 민을호, 본인의 아버지 민경생, 본인의 숙부 민상호가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한국전쟁이 나던 해 여름 경찰에게 연행되어 특곡국민학교에 구금되었다가 산청경찰서로 이송되었으며 수동면 본통고개에서 사살되었고, 함께 잡혀있던 민치학이 현장에서 생존하였다. • 약 5년 후에 현장을 가보니 구덩이가 2개인 것을 확인하였다. 시신은 수습하지 못하였고 제사만 지내고 왔다. <p>(신청인 민영석 진술조서, 2009.05.11.)</p>	<p>민중호(주민, 당시 22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마을 주민이었던 민을호, 민경생, 민상호가 보도연맹사건으로 함양 분티고개에서 사망했고, 같은 날 연행된 민치학은 사살현장에서 총을 맞았지만 생존하였다. <p>(참고인 민중호 진술조서, 2009.05.11.)</p>
375	홍인수	<p>홍상택(동생, 당시 15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 홍인수가 1946년 혹은 1947년 경 지리산 봉화사건에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 차례 경찰에 의해 고문을 받았다. 이후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자수하고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 •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6월 26일 이 장으로부터 보도연맹 훈련이 있다는 말을 듣고 오부국민학교로 출두하였으며 바로 오부지서로 연행되었다. 이후 2~3일 후에 산청경찰서로 이송되었고 면회 갔을 때 약 30여 명이 명석을 깔고 있었던 것을 목격하였다. 그리고 6 	<p>안순도(주민, 당시 19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부락에 살던 홍인수와 박시개가 논을 매고 있다가 경찰들에게 연행되어 산청에서 죽었다. 소문에 의하면 구덩이를 파고 총으로 싸 죽었다고 했다. 그 사람들이 잡혀간 며칠 후 인민군이 내려왔다. 시신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며, 그 가족들은 이사 갔다. <p>(참고인 안순도 통화보고서, 2009.09.17.)</p>

제 6 권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신청인 주요진술	참고인 주요진술
375	홍인수	<p>월 30일경 산청읍 싸릿고개에서 총살당했고 시신은 수습하였다. 시신수습당시 약 50여구의 시신이 있었다고 들었다. (신청인 홍상택 진술조서, 2008.09.11.)</p>	
558	박호조	<p>박동석(아들, 당시 1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 박호조가 1950년 여름 논매기를 하고 있는데 신안지서 순경이 데려간 후 연락이 없다가 생초면 본동고개에서 보도연맹원들이 희생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할머니와 삼촌이 시신을 찾으러 갔으나 찾지 못했다. 아랫마을에 살던 이(某)씨가 함께 희생되었다. (신청인 박동석 진술조서, 2009.08.04.) </p>	<p>이재석(주민, 당시 2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주민인 이성실, 박원조, 윗마을 박호조가 보도연맹으로 전쟁 발발 후에 논일을 하다가 경찰에게 연행되었고 이중 이성실과 박호조가 행방불명되었는데 소문에는 생초면 본동고개에서 죽었다고 들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원조(참고인의 외삼촌)는 산청경찰서로 이송된 후 풀려났다. (참고인 이재석 진술조서, 2009.05.26.) </p>
3390	배차수	<p>배창근(아들, 당시 1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 배차수가 전쟁 전에 경찰서에 자주 불려가 취조를 당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고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 1950년 7월 17~18일 경 지서에 불려간 후 7월 21일 경 생초면 본동골짜기에서 약 84명과 함께 총살되었고 시신 수습은 하지 못하였다. (신청인 배창근 통화보고서, 2008.02.12.) </p>	<p>이용문(시신매장자, 당시 28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쟁 발발 후 어느 날 구장이 삽이나 괄이를 들고 마을 사람들을 모이게 하였다. 함양과 산청의 경계선이 본동고개에서 죽은 수십 구의 시신들을 묻으라고 해서 3군데에 나누어 묻었고 그 안에 '배차수'가 있었다. 시신매장 당시 경찰 2명이 총을 들고 서 있어서 무서워서 시신을 매장할 수밖에 없었다. (참고인 이용문 진술조서, 2009.05.23.) </p>
3463	이또상	<p>이한준(아들, 당시 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 이또상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연행되어 산청경찰서에 구금되었으며 7월 28일경 산청읍 지리 안개골에서 총살되었다. 시신수습 당시에 약 30여구의 시신이 있었다고 들었다. (신청인 이한준 통화보고서, 2008.02.12.) </p>	<p>이동수(주민, 당시 1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네주민이 이또상이 경찰에게 잡혀가는 것을 보았고 이찬수, 오외술의 부친 등 7명이 보도연맹 사건으로 산청읍 지리에서 총살되어 시신을 수습한 사실을 알고 있다. (참고인 이동수 진술서, 2009.05.23.) </p>
3761	문정석 김수연 문홍국 민영조 문대주 노우분 문인주 문성주 김씨 (문성주의 모) 문국현	<p>문종길(친척, 당시 6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청경찰서 경찰이 문씨 집안사람들을 데려간 후 유치장에 수감시켰다가 1950년 7월 29일 경 산청군 지리 안개골에서 집단사살했다. 소식을 들은 친척들이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했다. (신청인 문종길 진술조서, 2009.09.15.) </p>	<p>강재창(주민, 당시 18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씨 집안 사람들 중 문홍섭은 산청초등학교 교사를 했고, 형 문홍택이 산청전매서장을 했다. 이 두 사람이 좌익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연맹 소집할 때 문홍철이 산청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산으로 도망갔다. 그러자 문씨 집안 사람들이 대신 잡혀가서 안개골에서 죽었다. 문홍택의 둘째 부인, 문홍철의 부인과 아기 한명, 문홍각의 부인하고 아기 한명, 문정칙의 형하고 형수하고 경찰이 철수할 때 잡아다가 안개골에서 죽었다. 당시 문홍택, 문홍철, 문홍각은 입산했기 때문에 그 집안의 여자하고 아기들을 잡아다가 죽였다. (참고인 강재창 진술조서, 2009.05.25.) </p>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3)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신청인 주요진술	참고인 주요진술
4389	김종만	<p>정태호(사위, 당시 9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인 김종만이 보도연맹에 가입하여 희생당했다고 들었다. 전쟁 발발 후 하동으로 피난을 가다가 처가에 잠시 들렀는데 보도연맹원들은 지사로 모이라는 방송을 듣고 시천지사로 갔다. 사천지사에 갔더니 바로 창고에 가두었고 그날 저녁에 트럭에 실려 갔는데 그 뒤로는 행방불명되었다. 산청읍내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가보았지만 시신수습은 못하였다고 들었다. <p>(신청인 정태호 통화보고서, 2008.02.14.)</p> 	<p>하치연(주민, 당시 21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주민이었던 김종만이 보도연맹원인데 6.25사변 나던 해에 보도연맹원들을 모이라고 해서 나간 후 소식이 없다. 죽은 것으로 알고 있다. <p>(참고인 하치연 진술조서, 2009.05.26.)</p>
5259	최종환	<p>최경순(딸, 당시 6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최종환이 1950년 7월 17일 산청군청에 불일이 있어서 나간 후에 행방불명되었고 이후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에서 총살되었는데 시신이 뒤죽박죽되어 수습은 하지 못했다고 들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보도연맹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다. <p>(신청인 최경순 통화보고서, 2008.02.20.)</p> 	<p>권두현(주민, 당시 29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연맹원이었던 최종환은 6.25 사변당시 단성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신안면 외송리에서 총살되었다고 들었다. <p>(참고인 권두현 진술조서, 2009.05.27.)</p>
5260	김성진	<p>김순자(딸, 당시 2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김성진은 1950년 3월쯤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좋을 것이라는 이장의 권유에 의해 도장을 내주어서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 • 그 후 1950년 7월 18일경 덕산지서로부터 소집통보를 받고 갔다가 산청경찰서로 이송된 후 행방불명되었다. 소문에 산청 사람들은 마산진동에서 죽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시신수습은 하지 못하였다고 들었다. <p>(신청인 김순자 통화보고서, 2008.02.15.)</p> 	<p>안갑생(주민, 당시 17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성진은 마을에서 김경포라고 불렸는데 전쟁 발발 후에 김성진 7명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고 하여 지사로 불려나가 그중 5명이 사망하였으며 김성진도 함께 희생당했다. <p>(참고인 안갑생 진술조서, 2009.05.27.)</p>
6458	이상대	<p>김옥남(제수, 당시 20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숙 이상대는 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전쟁 발발 후인 1950년 7월 30일경 마당머리 안동네에서 총살당했고 시신수습을 하였다. • 당시 시댁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경찰 들하고 친분이 있었는데 아마도 시숙이 똑똑했기 때문에 인민군에게 동조할 염려 때문에 죽인 것으로 알고 있다. 수복 후에 경찰이 찾아와 이상대의 사망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보았다. <p>(신청인 김옥남 통화보고서, 2008.02.21.)</p> 	<p>이상윤(6촌 동생, 당시 21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촌형님인 이상대는 보도연맹원이 아니었는데 사적인 감정 때문에 경찰에게 밀보여 보도연맹원들과 함께 총살되었다. • 당시 한 마을에서 17명이 끌려가 산청읍 내리 입구 마당머리라는 곳에서 16명이 사살되었는데 그중 보도연맹 가입자는 5명이었다. 1명은 현장에서 생존하여 실다가 현재는 사망하였다. <p>(참고인 이상윤 진술조서, 2009.05.24.)</p>
7718	권재도	<p>정임례(제수, 당시 19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숙이 보도연맹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들었고 희생일을 몰라 음력 9월 9일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 <p>(신청인 정임례 통화보고서, 2008.02.19.)</p> 	<p>정계섭(주민, 당시 11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 7월 20일경 단성장날 본인의 아버지와 권재도씨가 보도연맹원 소집통보를 받고 단성지사로 나간 후 행방불명되었다. 소집 다음날 권재도의 모친과 본인의 할머니가 산청경찰서

제 6 권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신청인 주요진술	참고인 주요진술
7718	권재도		에 면회를 가려고 하였으나 경찰서에 있던 보도연맹원들이 어디론가 갔다고 하여 그 후로는 소식을 알길이 없고 죽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인 정계섭 진술조서, 2009.05.26.)
8314	정정근	이월상(사위, 당시 10세) • 장인 정정근은 1950년 7월 20일 단성장날 순경에게 연행되어 산청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 행방불명되고 집나간 날로 제사를 지내고 있고 시체가 없어 가묘를 썼다.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보도연맹이라는 말은 들었다. (신청인 이월상 통화보고서, 2009.02.18.)	문영구(주민, 당시 21세) • 정정근은 1950년 7월 20일 보도연맹원은 단성에 모이라는 연락을 받고 단성에 나갔다가 산청경찰서로 갔으며 그 후로는 행방불명되었다. (참고인 문영구 진술조서, 2009.05.26.)
8318	노상식	노한준(아들, 당시 3세) • 아버지 노상식이 1950년 7월 21일경 오부면 사무소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나갔다가 산청군과 함양군의 경계인 번티고개에서 희생되었다. 시신을 수습하고자 하였으나 피범벅이 되어 찾을 수 없었고 한곳에 약 70여구의 시신이 있었다고 들었다. (신청인 노한준 통화보고서, 2008.02.18.)	노태순(동생, 당시 14세) • 1950년 7월 20일경 오부지서 순경이 와서 노상식을 데려간 후 생초면 본통고개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빠가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것은 나중에 들었다. (참고인 노태순 통화보고서, 2009.09.21.)
8319	강철판	강재신(아들, 당시 4세) • 아버지 강철판이 마을 구장을 하여 본의 아니게 부역을 해서 산청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려 갔다가 연행되어서 산청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20일 산청군 생초면 본통고개 국도 3호변에서 살해되었다고 들었다. (신청인 강재신 통화보고서, 2008.02.15.)	강재창(조카 · 시신목격자, 당시 18세) • 강철판삼촌은 좌익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산청경찰서 경찰에게 소집되어 산청경찰서에 구금되었다. 그러다가 얼마 후 본통고개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시신 수습을 위해 현장에 갔으나 시신이 많이 부패되어 수습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 생존한 민치학으로부터 강철판 삼촌이 현장에서 사살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강철판 삼촌 사망 후에 우리 마을의 민씨들 여러명이 인개 골에서 희생되었다. (참고인 강재창 진술조서, 2009.05.25.)
8467	노을상	노성균(손자, 미출생) • 할아버지 노을상이 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보도연맹원들 소집이 있자 다른 사람대신 나갔다가 1950년 7월 22일경 생초면에서 함양 넘어가는 본통고개에서 사살되었고 시신 수습은 못하였다고 들었다. (신청인 노성균 통화보고서, 2008.03.03.)	안흥순(주민, 당시 26세) • 한 마을에 살던 노을상 전쟁 나던 음력 6월 경 생초로 간다고 나가시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 그 후 본통고개에서 노을상을 포함하여 산청 사람들이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고 노을상의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도연맹 사건으로 죽은 사람은 노을상 한명이다. (참고인 안흥순 진술조서, 2009.05.23.)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신청인 주요진술	참고인 주요진술
9784 (1)	하재문	<p>하학선(조카, 당시 7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마을은 지리산자락에 위치하여 여순사건 당시 생겨난 빨치산들이 주민들을 많이 괴롭혔다. 그래서 빨치산의 강요에 의해 삼촌이 가마니를 찌서 지리산에 운반해주었고 후에 자수를 했다. 그런데 1950년 음력 6월경 단성지서로 끌려가 산청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트럭에 실려 나간 후 총살되었다고 알고 있다. 	<p>하재순(동생, 당시 15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빠 하재문이 동네 사랑방에서 놀다가 산에서 내려온 빨갱이들의 강요에 집을 운반한 일이 있었다. 그 후로 자수를 했는데 6.25가 나고 7월 24일경 경찰들이 오빠를 데리고 간 후 3일 만에 죽었다는 소문이 났지만 어딘지 몰라서 시신을 찾지 못하였다. (참고인 하재순 통화보고서, 2008.02.26.) <hr/> <p>강오석(주민, 당시 17세)⁵³⁾</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 인민군이 마을에 들어오기 직전 같은 마을에 살던 하재문과 허종락이 단성지서 경찰에게 연행된 모습을 목격하였는데 그 후 행방불명되었다. (참고인 강오석 진술조서, 2009.05.27.)

나) 주요 참고인 조사(의용경찰, 생존자, 목격자, 시신수습자 등)

산청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가해 측 참고인인 산청경찰서 소속 경찰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고 의용경찰로 근무하던 자, 사살현장 생존자, 경찰의 지시 하에 사망자들의 시신을 매장하거나, 수복 후 희생자의 시신 수습에 참여했던 자, 보도연맹원이 연행되는 것을 목격한 자, 미신청 유족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참고인의 진술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주요 참고인 진술내용

성명 (당시 나이)	사건 관련성	주요 진술내용
민중호 ⁵⁴⁾ (22세)	의용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청군 금서면 특리의 보도연맹원들은 산청경찰서로 넘겨져 5~6일 구금되었다가 트럭에 실려 생초면 본통고개로 데리고 가 죽였다고 들었으며, 가해자는 산청경찰이라고 알고 있다. 당시 산청에는 군인들은 없었고 경찰들만 있을 때였다.
민치학 ⁵⁵⁾ (33세)	현장생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경위는 조건 없이 지서에서 불려가서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되었다. 동생과 함께 논을 매고 있었는데, 산청경찰서로 동생과 함께 잡혀갔다. 금서면, 산청면 등지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때 헌병 복장을 한 군인이 우리를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잡혀간 다음날 유치장에서 불러낸 후 갑(甲)과 을(乙)로 구분하여 세웠는데 동생이 내가 있는 갑으로 오자 경찰이 거기 가면 죽는다고 하여 동생은 다시 을로 갔다. 저녁때가 되자 경찰은 거창 재판소로

53) 참고인 강오석 진술조서, 2009.05.27.

제 6 권

성명 (당시 나이)	사건 관련성	주요 진술내용
민치학 (33세)	현장생존자	간다면서 보도연맹원들을 트럭 두 대에 싣고 가다가 함양과 산청의 경계인 본통고개에서 내리라고 하더니 총을 쏘았다. 내가 총을 맞지 않았다고 경찰이 확인 사실을 했는데 그때 목에 총을 맞았다. 생존자가 두 사람 더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금서면 화계에서 마을로 들어갔다 경찰에게 잡혀 금서면 수철에서 다시 사살 당했다. 당시 산청경찰서에서 호명한 사람은 55명이었는데 운전수를 하던 사람 하나를 포함해서 56명이 본통고개로 실려 갔다.
김임준 ⁵⁶⁾ (20세)	희생현장 목격자	• 전쟁 직후 산청경찰들이 후퇴할 때 보도연맹원들을 산청읍 쌀고개 맞은 편 산과 산청읍 자동차 수리소 자리에서 학살했다. 부리 쌀고개 맞은편에서는 30여 명의 보도연맹원들이 구덩이를 파게 한 다음 학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강오석 ⁵⁷⁾ (17세)	연행목격자	• 이웃집에 사는 하재문, 허종락은 정복을 입은 단정지서 순경이 데려갔는데 이후 소식이 없다. 당시 같은 마을의 도현수도 호출했으나 도현수는 다리를 다쳐 데려가지 않았다. 하재문, 허종락을 우리집 앞에 세워놓고 도현수를 부르는 것을 목격했다.
이용문 ⁵⁸⁾ (28세)	시신수습자	• 1950년 여름 마을구장의 지사로 마을의 젊은 남자들이 삼과 깡이를 들고 본통고개로 가보니 수십 명의 사람들이 두세 명 혹은 서너 명씩 손을 묶인채로 죽어 있었다. 현장에는 경찰 두 명이 총을 들고 서서 빨리 묻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시신을 한군데에 다 묻지 못하여 세군데로 나누어서 묻었다. 위치는 산청과 함양의 경계지점이며 본통고개이다.
이상윤 ⁵⁹⁾ (221세)	시신수습자	• 산청군 내리 입구 마당머리에 17명이 끌려가 1명이 생존하고 16명이 사망했다. 내가 직접 이장시킨 시신이 3구이다. 가해자는 산청경찰이고, 날짜는 산청경찰이 후퇴하던 1950년 7월 30일이다.
강재창 ⁶⁰⁾ (18세)	시신수습자	• 마을사람들과 함께 삼촌의 시신을 수습하려 생초면 본통고개로 갔는데 시신이 두세 명씩 묶여 있었으며, 부패가 심하여 얼굴을 알아 볼 수가 없었다.
민경자 ⁶¹⁾ (11세)	미신청유족	• 아버지 민치상이 보도연맹원들이 잡혀가 생초면 본통고개에서 희생당할 때 함께 희생되었으며, 당시 아버지의 직업은 도청에서 운전을 하였다.

나. 조사결과

1) 산청 국민보도연맹 결성, 가입경위 및 활동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국민보도연맹 산청군연맹의 조직구성, 규모, 결성일자 등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54) 참고인 민중호 진술조서, 2009.05.11.
 55) 참고인 민치학 면담보고서, 2009.05.11.
 56) 참고인 김임준 면담보고서, 2008.01.08.
 57) 참고인 강오석 진술조서, 2009.05.27.
 58) 참고인 이용문 진술조서, 2009.05.23.
 59) 참고인 이상윤 진술조서, 2009.05.24.
 60) 참고인 강재창 진술조서, 2009.05.25.
 61) 참고인 민경자 진술조서, 2009.06.29.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진실규명대상자들 산청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좌익단체에 가입했거나 좌익활동 혐의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실규명대상자 홍인수는 1946~7년경 지리산 봉화사건에 참여하고 자수하여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였으며⁶²⁾, 배차수는 전쟁전에 경찰서에 자주 불려가 취조를 당하곤 하다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⁶³⁾ 그러나 신청인중 다수는 진실규명대상자들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한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산청 국민보도연맹이 군(郡)이나 면(面) 단위에서 특정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 사살 현장에서 생존한 국민보도연맹원 민치학의 진술에서도 국민보도연맹 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⁶⁴⁾

2) 예비검속 및 희생경위

신청인 및 참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하자 진실규명대상자들이 산청경찰서 경찰, 지서 순경에게 연행되거나 소집되어 산청경찰서 유치장, 지서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경 산청읍 내리 쌀고개 앞, 생초면 어서리 본통고개, 산청읍 내리 마당머리, 산청읍 지리 안개골 등에서 사살되었으며 시신을 수습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산청읍 내리 쌀고개 앞 희생사건 진실규명대상자 홍인수는 마을이장으로부터 국민보도연맹원 훈련이 있다는 말을 듣고 오부국민학교로 소집되어 오부지서를 거쳐 산청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산청읍 내리 쌀고개 앞에서 사살되어 시신을 수습하였다.⁶⁵⁾ 현장 목격자 김임준은 '산청 경찰들이 후퇴할 때 산청읍 내리 쌀고개 맞은편에서 국민보도연맹원들에게 구덩이를 파게한 다음 30여 명을 학살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⁶⁶⁾

생초면 어서리 본통고개 희생사건 진실규명대상자 이성실은 1950년 7월 19일 경찰에게 연행되어 산청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본통고개에서 사망했으며⁶⁷⁾, 민을호, 민경생, 민상

62) 신청인 홍상택 진술조서, 2009.05.26.

63) 신청인 배창근 통화보고서, 2008.02.12.

64) 참고인 민치학 면담보고서, 2009.05.22.

65) 신청인 홍상택 진술조서, 2008.09.11.: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중 서로 다른 내용이 있다. 신청인 홍상택은 희생자들이 국민보도연맹원 훈련이 있어 소집되었다고 진술하나 참고인 안순도는 경찰이 희생자 홍인수와 박시개를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산청읍 내리 쌀고개 희생사건의 목격자 김임준은 산청에서 경찰들이 후퇴할 무렵(1950년 7월 하순경)이라고 하므로, 희생시기가 신청인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신청인과 참고인 모두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조사결과로는 희생일자를 확정이 불가하다. 다만 신청인, 참고인 모두 희생장소는 동일하게 지목했다.

66) 참고인 김임준 면담보고서, 2008.01.08.

67) 신청인 이귀순 진술조서, 2009.05.26.

호, 민치학은 금서면에서 소집되어 산청경찰서 유치장에서 구금되었다가 국민보도연맹원을 갑(甲), 을(乙)로 분류한 뒤 을은 풀어주고 갑은 본통고개로 신고가 사살했다. 이때 민치학은 경찰의 확인 사살과정에서 총에 맞았으나 살아 돌아왔다고 진술했다. 다음은 생존자 민치학의 진술이다.⁶⁸⁾

“(동생과 함께)논에서 논매다가 지서에서 불러서 갔습니다. 그리고 산청경찰서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경찰서로 잡혀간 그 이튿날 점심때였는데 유치장 밖으로 막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갑은 요리서고 을은 요리 서라고 했습니다. 갑과 을을 부르는 대로 갈라섰습니다. 훈련받은 것처럼 쪽 섰습니다. …그때가 저녁때였는데 경찰들은 너희가 무슨 죄가 있나, 거창재판소에서 너희를 오라고 한다. 거창재판소에 가서 재판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은 석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창으로 간다고 하고 갔습니다. …함양하고 산청하고 경계가 있는 곳에서 본통고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무 이유도 없이 차 뒤에서… 사람을 다섯씩 포승을 가지고 묶었습니다. 다섯씩 죽 연결이 되어서 앞에서 내리면 뒷 사람이 안 내릴 수가 없었죠. 차근차근 차례차례 내리면 총으로 쏘았습니다. 그리고 내 차례가 다가 왔습니다. 밤이었는데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왔습니다. 내가 총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쓰러져 있었는데 나는 총을 맞은 것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총에 안 맞은 사람들에게 다시 총을 쏘는데 나를 향해서 이놈 안 맞았다고 하면서… 숨이 차서 헉헉거리며 어디 어디 하더니 나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한참 후 깨어보니 산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보고 보이소 보이소 안 맞았소 하니까 맞긴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줄을 풀어 달라고 해서… .”

“본통고개 현장까지 끌려간 사람은 5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운전수도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알기로 산청경찰서에서 호명하기로 55명이었는데 뒤쪽에 있던 운전수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하니까 그 사람까지 56명이었습니다.”

국민보도연맹원들이 산청경찰서 경찰들에게 생초면 본통고개에서 사살당했다는 민치학의 진술은 경찰의 지시로 사망자 시신을 매장한 참고인 이용문의 진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⁶⁹⁾

“마을구장이 갑자기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어 있으니까 마을사람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이나 팽이를 들고 모이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서 죽은 사람들 시신을 묻었습니다. 함양하고 산청하고 경계선이 본통고

68) 신청인 민영석 진술조서, 2009.05.11.; 참고인 민치학 면담보고서, 2009.05.22.

69) 참고인 이용문 진술조서, 2009.05.23.

개인데 우리 마을에서 물을 건너가면 바로 있습니다. …마을사람들하고 본통고개에 갔는데 수십 명이 죽어 있었습니다. 두세 명이나 서너 명씩 손을 묶여서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세 군데에 묻었습니다. 한 군데로 다 묻지 못해서 세 군데로 나누어서 묻었습니다. …그때 순경들이 빨리 묻으라고 충을 들이대며 소리소리 질러서 우리는 정신없이 묻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보도연맹원과 함께 희생된 사람 중 운전수가 있었다는 생존자 민치학의 진술을 볼 때 그 운전수는 미신청 유족 민경자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다.⁷⁰⁾

산청읍 내리 마당머리 희생사건 진실규명대상자 이상대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경찰과 사적 감정 때문에 국민보도연맹원들과 함께 희생되었다고 한다. 참고인 이상윤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날은 산청경찰들이 후퇴하던 1950년 7월 30일이었고, 산청 수복 후 본인이 직접 몇 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한다. 아래는 참고인 이상윤의 진술이다.⁷¹⁾

“이상대씨는 일본에서 차 운전을 하다가 귀국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토가 30여 마지기 되었습니다. 이상대씨는 산청면 의용호국대 중대장을 했습니다. 당시 의용호국대 간부면 전부 우익진영이라고 보면 됩니다. 6.25가 발발하고 경찰들이 후퇴할 때 보도연맹원들을 죽일 때 평소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상대씨와 몇몇 사람들을 함께 죽인 것입니다. 이상대씨의 모친은 경찰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니까 좋은 데로 데리고 가는 줄 알고 우리 아들도 데려 올까요 하나까 경찰이 데려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대씨의 모친이 원두막에 있던 이상대씨를 불러다가 경찰을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따라가서 죽었습니다. …(당시 사망한 사람들은) 모두 17명이 끌려갔는데 16명이 사살되었고 조찬순씨는 살아났습니다. 당시에 보도연맹 가입자는 5명이었고 나머지는 보도연맹원이 아니었습니다. 조찬순씨는 한참을 살다가 현재는 돌아가셨습니다.”

산청읍 내리 국민보도연맹 희생사건은 신문기사에도 실려 있다. 1960년 6월 11일자 부산일보에는 ‘산청경찰서원이 산청면 내리에 집단피난 중인 이상대씨 외 19명을 무조건 내리 앞 백사장으로 끌고가 총살했다’고 실려 있으며, 항도일보 1989년 10월 16일자에는 ‘산청군 내리에서 경찰들이 마을주민들을 모이게 한 후 선별하여 사살했는데, 희생자 중에는 이상대가 있었고 조찬순은 현장에서 살았다’는 내용이다.

70) 참고인 민경자 진술조서, 2009.06.29.; 민경자는 아버지 민치상이 당시 운전수였다고 진술했다. 당시 운전수는 흔치 않은 직업이었다.

71) 신청인 김옥남 통화보고서, 2008.02.21.

제 6 권

산청읍 지리 안개골 희생사건 진실규명대상자 이포상은 ‘경찰이 불러 나간 후 산청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28일경 산청읍 지리 안개골에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였으며, 시신이 약 30여구 있었다’고 진술했다.⁷²⁾ 그리고 안개골에서는 국민보도연맹원을 소집했을 때 도피한 자의 가족과 친척들을 연행, 구금한 후 ‘대살’(代殺)한 경우도 있었다. 좌익활동을 하던 문홍섭 등은 한국전쟁 발발한 후 산청경찰서에서 국민보도연맹원을 소집할 때 도피하여 입산했다. 그러자 경찰은 문홍섭 등의 가족과 친척 10명을 산청경찰서로 연행하여 유치장에 구금하였다가 산청경찰이 후퇴하기 직전인 1950년 7월 말경에 산청읍 지리 안개골에서 집단 학살하였다. 당시 경찰에게 학살된 사람은 1~3세 유아 4명, 성인 여자 4명(그중 2명은 임신부), 성인 남자 2명 등이었다. 희생자들은 좌익활동을 한 적이 없었으나, 가족 중에서 국민보도연맹원 소집 때 도피하였다는 이유로 집단학살당했다. 신청인 문종길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⁷³⁾

“우리 집안이 보도연맹 집안이다. 빨갱이 집안이다. 라고 하면서 구장하고 경찰 1명이 집으로 왔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문씨 집안 사람들에게 경찰서로 가자고 했습니다.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아이들을 데리고 간 여자들은 풀어줄 것이니까 데리고 가라고 해서 아이들도 함께 갔습니다. 산청경찰서로 잡혀간 사람들은 6~7일 정도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며칠이 지난 이른 아침에 지리 안개골에서 문씨집안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들이 안개골에서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당시 사망한 사람은) 문정석, 김수연, 문홍국, 민영조, 문대주, 노우분, 문인주, 문성주, 문성주 모(문홍택의 두 번째 부인), 문국현입니다. 문홍국, 문대주, 문인주, 문성주는 3살 미만이었고, 민영조와 노우분은 임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여자 2명에 남자 2명 모두 10명이 그 때 경찰에게 사살당했습니다.”

신청인의 이러한 주장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참고인 강재창의 진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강재창은 문씨 집안이 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당한 경위와 희생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했다.⁷⁴⁾

“문씨 집안 사람들 중 마을의 문홍섭이 왜정 때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나왔습니다. 문홍섭이 산청초등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문홍섭의 형 문홍택이 산청전매서장을 했습니다. 이 두 사

72) 신청인 이한준 통화보고서, 2008.02.12.

73) 신청인 문종길 진술조서, 2009.09.15.

74) 참고인 강재창 진술조서, 2009.05.25.

람이 좌익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씨들이 좌익사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철판)삼촌하고 같은 날 산청경찰서로 간 사람이 문홍철인데 그 사람은 산청경찰서에서 풀려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홍철씨는 풀려나서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문씨들이 보도연맹으로 잡혀가서 죽을 때 문홍철의 부인이 잡혀가서 안개골에서 죽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도망가서 부인이 대신 끌려가 죽은 것 같습니다.”

“문홍택의 둘째 부인이 안개골에서 죽었고, 문홍철의 부인과 아기 한명, 문홍각의 부인과 아기 한 명, 문정칙의 형하고 형수하고 경찰이 철수할 때 잡아다가 안개골에서 죽었습니다. 문홍택, 문홍철, 문홍각은 당시 입산했기 때문에 그 집안의 여자하고 아기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문홍섭은 수복하고 나서 경찰들에게 집에서 잡혀 산청경찰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문씨 집안 사람들이 집단 희생당한 사실에 대해 산청전매소에서 문홍택과 함께 근무했던 이상윤도 ‘목곡리 문씨들이 7~8명 보도연맹사건으로 산청읍 안개골에서 사망’했다고 진술했다.⁷⁵⁾

요컨대 산청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산청경찰서 소속 경찰들에게 연행 혹은 소집되어 산청경찰서 유치장, 지서 등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경 산청군 산청읍 내리 쌀고개 앞, 생초면 어서리 본통고개, 산청읍 내리 마당머리, 산청읍 지리 안개골 등지에서 사살당했다고 신청한 사건은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결과 사실로 판단된다.

3) 희생자의 수와 신원

산청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전체 희생자 규모는 추정할 수 없다. 희생자의 수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주장에 따라 차이가 많았으며, 희생자 수를 추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한 자에 한해 조사하였기 때문에 산청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전체 희생자 규모를 추정할 수는 없다.

산청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중에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원을 확인한 희생자는 29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산청군에 거주하던 20~40대의 남성이었으나 지리 안개골에서는 영유아 4명, 임신부 2명이 포함된 여성 4명 등이 희생되었다. 희생자 확인은 진실규명 대상자의 희생사실을 목격하거나 전문(傳聞)을 통해 알고 있는 자의 진술을 확보한 경우,

75) 참고인 이상윤 진술조서, 2009.05.24.

제 6 권

시신수습을 한 경우, 제적부나 족보에 희생일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하였다.

산청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된 사람과 확인 근거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산청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와 확인 근거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희생자					확인근거			확인여부		
			성명	성별	당시나이	신청인과의관계	당시주소	참고인진술	시신수습여부	제적부·족보기록			
1	273	이귀순 (李貴順)	이성실 (이성실)	남	24	오빠	산청군 신안면 문대리 682	이재석			확인		
2	361	민영화 (閔泳和)	민을호 (閔乙鎬)	남	36	부	산청군 금서면 특리 455	민중호			확인		
			민경생 (閔慶生)	남	41	친척	산청군 금서면 특리 443				확인		
			민상호 (閔相鎬)	남	39	친척	산청군 금서면 특리 477				확인		
3	375	홍상택 (洪祥澤)	홍인수 (洪寅洙)	남	26	형	산청군 오부면 중촌리 706	안순도			확인		
4	558	박동석 (朴東碩)	박호조 (朴好祚)	남	30	부	산청군 신안면 문대리 507	이재석			확인		
5	3390	배창근 (裴昌根)	배차수 (裴且壽)	남	41	부	산청군 생초면 하촌리 643	이용문			확인		
6	3463	이한준 (李漢俊)	이또상 (李又相)	남	42	부	산청군 오부면 왕촌리 411	이동수	○		확인		
7	3761	문종길 (文宗吉) 76)	문정석 (文正碩)	남	43	3종조부	산청군 산청읍 목곡리 430	강재창		○	1950. 07.	확인	
			김수연 (金壽漣)	여	31	3종조모	산청군 산청읍 목곡리 430				○	1950. 07.	확인
			문홍국 (文洪國)	남	3		산청군 산청읍 목곡리 430				○		확인
			민영조 (閔永祚)	여	34		산청군 산청읍 목곡리 329				○	1950. 07.	확인
			문대주 (文大柱)	남	3		산청군 산청읍 목곡리 329				○		확인
			노우분 (盧又紛)	여	33		산청군 산청읍 목곡리 330				○	1950. 07.	확인
			문인주 (文仁柱)	남	1		산청군 산청읍 목곡리 330				○		확인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3)

연 번	사건 번호	신청인	희생자				확인근거			확인 여부	
			성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당시 주소	참고인 진술	시신 수습 여부		제적부·족보 기록
7	3761	문종길 (文宗吉)	문성주 (文成柱)	남	1		산청군 산청읍 묵곡리 328		○		확인
			金氏 ⁷⁷⁾	여			산청군 산청읍 묵곡리 330		○		확인
			문국현 (文國鉉)	남	29		산청군 산청읍 묵곡리 324		○		확인
8	4389	정태호 (정태호)	김종만 (金鍾萬)	남	27	장인	산청군 시천면 반천리 486	하치연			확인
9	5259	최경순 (崔敬順)	최종환 (崔宗煥)	남	28	부	산청군 단성면 입석리 747	권두현		1950. 6. 2. 신안면 외송리 번지불 상사망	확인
10	5260	김순자 (金순자)	김성진 (金聖辰)	남	26	부	산청군 시천면 반천리 102	안갑생			확인
11	6458	김옥남 (金玉南)	이상대 (李相大)	남	31	시숙	산청군 산청면 옥동리 341	이상윤	○		확인
12	7718	정임례 (정임례)	권재도 (權載道)	남	27	시숙	산청군 단성면 입석리 658	정계섭			확인
13	8314	이월상 (이월상)	정정근 (鄭貞根)	남	38	장인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415	문영구			확인
14	8318	노한준 (盧漢俊)	노상식 (盧相植)	남	25	부	산청군 오부면 오전리 446	노태순			추정
15	8319	강재신 (姜在信)	강철판 (姜招判)	남	40	부	산청군 산청면 묵곡리 325	강재창		1950. 7. 20.	확인
16	8467	노성균 (盧成均)	노을상 (盧乙相)	남	36	조부	산청군 생초면 구평리 594	안흥순			확인
17	9784 (1)	하학선 (河學善)	하재문 (河載文)	남	22	숙부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594	하재순 강오석			확인
18	미신청	민경자	민치상	남	33	부	산청군 산청면 하동 29 번지	민치학			추정

76) 참고인 강재창 진술조서, 2009.05.25.: 참고인의 진술조서에 부녀자와 어린아이가 희생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77) 신청서에 문성주의 母라고 기재되었다.

4) 가해주체 및 가해의 지휘명령체계

신청인과 참고인들은 국민보도연맹원들이 산청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연행 혹은 소집되어 구금되었다가 희생당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국민보도연맹원을 소집할 당시에 산청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희생현장에서 총에 맞은 후 살아온 생초면 본통고개 생존자 민치학과 산청읍 내리 쌀고개 희생현장 목격자 김임준, 생초면 본통고개 시신 수습자 이용문, 산청읍 내리 마당머리 시신 수습자 이상운 등 참고인은 가해자는 산청경찰서 경찰이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산청 국민보도연맹원 희생사건의 가해주체는 산청경찰서 소속 경찰로 판단된다. 그러나 가해의 구체적인 지휘명령계통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현장생존자 민치학은 산청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되었을 때 국군 장교를 보았다고 진술했으나 국군이 산청 국민보도연맹 희생사건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 소결

산청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은 전쟁이 발발하자 산청경찰서 소속 경찰들에게 연행 혹은 소집된 후 산청경찰서, 지서 등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경 산청군 산청읍 내리 쌀고개, 생초면 어서리 본통고개, 산청읍 지리 안개골, 산청읍 내리 마당머리 등에서 집단사살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산청읍 묵곡리에 거주하던 문씨 집안의 경우 국민보도연맹 소집 당시 도피하여 입산한 자의 가족, 친척 등이 집단 ‘대살’ (代殺)당했는데 그 중에는 영유아 4명과 임산부 2명이 포함된 여성 4명 등이 있었다.

산청 국민보도연맹원 희생사건의 가해주체는 산청경찰서로 판단되며 가해의 구체적인 지휘명령계통은 밝혀내지 못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신원을 확인한 희생자는 이성실(이성실), 민을호(閔乙鎬), 민경생(閔慶生), 민상호(閔相鎬), 홍인수(洪寅洙), 박호조(朴好祚), 배차수(裴且壽), 이또상(李又相), 문정석(文正碩), 김수연(金壽漣), 문홍국(文洪國), 민영조(閔永祚), 문대주(文大柱), 노우분(盧又紛), 문인주(文仁柱), 문성주(文成柱), 김씨(金氏), 문국현(文國鉉), 김종만(金鍾萬), 최종환(崔宗煥), 김성진(金聖辰), 이상대(李相大), 권재도(權載道), 정정근(鄭貞根), 강철판(姜招判), 노을상(盧乙相), 하재문(河載文) 등 27명이며, 희생 추정자는 노상식(盧相植), 민치상(민신청) 등 2명이다.

4. 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

가. 조사개요

1) 신청인 접수 현황

신청인 이복석(다-2호) 등 24명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경상남도 함양군에 거주하고 있었던 진실규명대상자들이 국민보도연맹원 혹은 인민군에 동조할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예비검속되어 1950년 7월경 함양군 석복면 난평리 보골⁷⁸⁾, 수동면 화산리 밤나무 숲, 함양읍 백연리 두재고개, 지곡면 보산리 가운데고개 등에서 총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조사 개시된 사건 중 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분류된 24건의 상황은 <표 9>와 같다.

<표 9> 신청인 접수 현황

연번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진실규명대상자				
				성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당시 주소
1	2005.12.01.	2	이복석(이복석)	이경록(李慶祿)	남	39	부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70
2	2006.01.25.	952	이창우(이창우)	이타관개(李他官介)	남	45	사촌형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 370
3	2006.03.03.	1979	이백은(李百銀)	이종운(李鍾云)	남	20	숙부	함양군 병곡면 연덕리 1050
4	2006.03.08.	2188	조정현(趙正鉉)	조문옥(趙文玉)	남	29	부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70
5	2006.03.08.	2189	김말녀(金末女)	김완철(金完哲)	남	26	오빠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843
6	2006.03.10.	2280	차정호(車正浩)	차태석(車泰錫)	남	37	부	함양군 백전면 양백리 561
7	2006.03.10.	2281	홍종순(홍종순)	임종섭(林鍾燮)	남	30	시부	함양군 백전면 양백리 653
8	2006.03.22.	2604	전영호(全永浩) ⁷⁹⁾	전영석(全永錫)	남	18	형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38
9	2006.04.18.	3062	임재근(林在根)	임원섭(林原燮)	남	43	부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411

78) 사건 당시 석복면이었으나 현재는 함양읍으로 통합되었다.

79) 신청인은 전영구와 전영석 2명의 사건을 신청했으나 전영구 사건은 1949년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된다.

제 6 권

연 번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진실규명대상자				
				성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당시 주소
10	2006.04.18.	3063	이중태(李鍾泰)	이춘성(李春成)	남	37	부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 1167
11	2006.04.18.	3064	이옥순(李玉順)	이영운(李泳云)	남	26	남편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 1174
12	2006.04.18.	3065	정철상(鄭喆相)	정용진(鄭龍辰)	남	31	부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838
13	2006.04.28.	3360	권광수(權曠洙 ⁸⁰⁾)	권재덕(權載德)	남	58	조부	함양군 지곡면 덕암리 855
14	2006.06.30.	4089	최천대자(崔千代子)	최희원(崔熙元)	남	35	부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1596
15	2006.10.10.	5560	박정호(朴正鎬)	박종달(朴鍾達)	남	37	부	함양군 함양읍 신천리 132-2
16	2006.10.13.	5649	엄두리치(嚴斗利致)	엄무성(엄무성)	남	모름	부	함양군 석북면 이은리 941
				유소아지(유소아지)	여	모름	모	함양군 석북면 이은리 941
17	2006.10.16.	5681	허진수(許鎭洙)	허삼암(許三岩)	남	35	백부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975-1
18	2006.10.30.	6414	신태일(申太一)	신종선(申宗先)	남	24	숙부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879
19	2006.11.08.	6698	강재감(姜在淦)	강영길(姜永吉)	남	36	부	함양군 수동면 내백리 271
20	2006.11.24.	7638	배영삼(裵永三)	배길용(裵吉龍)	남	33	숙부	함양군 휴천면 태관리 28
21	2006.11.30.	9976	박승대(朴勝大)	박승창(朴勝昌)	남	26	형	함양군 함양읍 신천리 618
22	2006.11.30.	9977	여성현(呂聖鉉)	여옥현(呂玉鉉)	남	23	형	함양군 함양읍 신천리 613
23	2006.11.30.	9978	하상민(하상민)	하종갑(河宗甲)	남	34	조부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559
24	2006.03.21.	2572(1)	이석순(李石順)	김석배(金錫培)	남	29	시숙	함양군 안의면 교북리 213

80) 신청인은 권계덕, 권구현, 권계현 3명의 사건을 신청했으나 권구현, 권계현 사건의 경우 1949년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된다.

2) 조사내용

가) 신청인 및 신청인 측 참고인 조사

신청인 및 신청인 측 참고인의 주요 진술내용은 <표 10>과 같다.

<표 10> 신청인 및 신청인 측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신청인 주요진술	참고인 주요진술
2	이경록	이복석(아들, 당시 17세) • 1950년 8월경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부친 이경록이 함양경찰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경찰서에 수감되었다가 함양군 석북면 인근 산에서 80여 명이 사살되어 매장되었다. (신청인이 사망하여 진실규명신청서 내용을 정리하였다.)	김창록(외조카, 당시 15세) • 외삼촌 이경록이 1950년 8월경 지곡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약 20여일이 지나서 석북면 난드리에서 약 100명과 함께 희생되었고 시신을 수습하였다. 우리 마을에서는 약 5명이 함께 죽었고, 함양에서는 석북면 외에도 산천면 특골에서도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 (참고인 김창록 진술조서, 2008.03.26.)
952	이타관개	이창우(조카, 당시 16세) • 지사에서 보도연맹에 가입하라고 하여 가입했는데 6.25사변이 날 무렵 보도연맹원들을 함양경찰서에 구금하였다가 생초면 본통고개에서 사살하였다. 본통고개에서 시신을 수습하였다. (신청인이 사망하여 진실규명신청서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동수(조카, 당시 12세) • 삼촌 이타관개가 전쟁 발발 후 경찰서에 불러간 후 1950년 7월 21일 수동면 본통고개에서 사살되었고 시신은 1년 후에 신체특징을 보고 수습하였다. • 삼촌 사망 후 보도연맹에 가입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참고인 이동수 진술조서, 2009.06.15.) 강상조(주민, 당시 22세) • 이타관개가 마을사람 1명과 함께 국민보도연맹 사건 끌려가 본통고개에서 사망하였다. (참고인 강상조 진술조서, 2009.06.15.)
1979	이중운	이백은(조카, 당시 3세) • 숙부 이중운이 1950년 7월 12일경 논일을 하다가 잡혀간 후로는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사망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신청인 이백은 통화보고서, 2008.03.19.)	이종원(형, 당시 24세) • 막내동생 이중운이 집안형편이 어려워 같은 마을에서 남의집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1950년 7월경 아침밥 먹고 일하러 갔는데 경찰에게 잡혀가 그 후로 안 들어왔다. 보도연맹에 가입했는지는 모르겠다. (참고인 이종원 진술조서, 2009.06.19.)
2188	조문옥	조정현(아들, 당시 4세) • 아버지 조문옥이 보도연맹에 가입하였고 평소에 지곡국민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들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빨갱이들이 내려온다고 평소 훈련받던 사람들을 대장을 들고 모이게 하고는 트럭에 태워 함양경찰서에 3일정도 구금시켰다가 1950년 7월 27일경 보골에서 희생	박묘준(부인, 당시 22세) • 남편 조문옥이 마을주민의 권유에 의해 보도연맹에 가입하였고 평상시에 지곡국민학교에서 훈련을 자주 받았다. 그러다가 전쟁이 발발하고 훈련이 있다고 해서 또 소집되었는데 인민군이 내려온다고 피난을 가야한다고 하던 무렵 잡혀간 사람들이 함양을 보골에서 죽었다는

제 6 권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신청인 주요진술	참고인 주요진술
2188	조문옥	되었으며 보골희생자가 약 100여 명이라고 들었다. 시신은 수습하였다. (신청인 조정현 진술조서, 2009.01.23.)	소문을 듣고 시신을 수습하였다. 커다란 구덩이가 1개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 있었다. 사건번호 다-2호(신청인 이복석)건의 아버지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망하였다. (참고인 박묘준 진술조서, 2009.06.17.)
2189	김완철	김말녀(동생, 당시 24세) • 오빠 김완철이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특별한 좌익활동도 하지 않았으며 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함양경찰에게 연행되어 함양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27일경 함양읍 난평리 보골에서 희생되었고 시신은 수습하였다. 보골희생자가 약 100여 명이라고 들었다. (신청인 김말녀 진술조서, 2009.01.23.)	박묘준(주민, 당시 22세) • 김말녀의 오빠 김완철은 남편 조문옥과 함께 함양읍 보골에서 사망하여 시신을 찾은 사실을 알고 있다. (참고인 박묘준 진술조서, 2009.06.17.)
2280	차태석	차정호(아들, 미출생) • 아버지 차태석이 보도연맹에 가입하였고 사망하기 한 달 전쯤 지서에 붙들려갔다가 석방된 사실이 있다고 들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백전지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함양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27일경 함양읍 난평리 보골에서 희생되었고 시신은 수습하였다. 보골희생자가 약 100여 명이라고 들었다. (신청인 차정호 진술조서, 2009.02.05.)	김삼순(주민, 당시 18세) • 전쟁이 발발하고 어수선한 때에 같은 마을 주민이던 차태석과 임종석, 김재섭(비신청)이 1950년 7월 27일경 지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함양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함양읍 보골에서 희생되었다. 연행당시 포승줄에 묶여서 차에 실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남편이 시신수습을 도와주었다. (참고인 김삼순 진술조서, 2009.02.05.)
2281	임종섭	홍중순(며느리, 미출생) • 시아버지 임종섭이 보도연맹이 무언지도 모르고 도장을 달라기에 찍어줬다는 말을 들었고 전쟁 발발 후 백전지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1950년 7월 27일경 지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함양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함양읍 보골에서 희생되었고 시신은 수습하였다고 들었다. 보골에서 죽은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고 들었다. (신청인 홍중순 진술조서, 2009.02.05.)	
2604	전영석	전영호(동생, 당시 12세) • 중형 전영석이 빨갱이에게 밥을 준 것이 문제가 되어 보도연맹에 가입하였고, 지사로 출석통지를 받고 자발적으로 지사로 갔으며 함양경찰서로 이송되어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말경(인민군의 함양 진입 3일전) 함양읍 보골에서 희생되었고 시신은 수습하였다. (신청인 전영호 진술조서, 2008.04.29.)	임광택(주민, 당시 22세) • 마을 주민이었던 전영석이 전쟁이 발발하고 인민군이 내려오기 전에 경찰에게 연행된 후로 보지 못하였다. (참고인 임광택 진술조서, 2009.06.12.)
3062	임원섭	임재근(아들, 당시 18세) • 1950년 7월 26일 부친 임원섭은 청년 2명의 연락을 받고 정현상, 정인현과 함께 지곡으로 갔는데 정현상, 정인현은 돌아왔고 임원섭은	임분남(딸, 당시 15세) • 마을 구장이 보도연맹 가입하라고 하여 아버지 임원섭뿐 아니라 동네사람들이 도장을 주고 많이 가입하였던 것 같다.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3)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신청인 주요진술	참고인 주요진술
3062	임원섭	돌아오지 못했다. 수소문을 하여 보니 7월 27일 새벽 13명을 함양으로 호송하였다고 한후 함양군 석복면 보골에서 사살했다고 했다. 보골에 가서 가로세로 5m 크기의 구덩이를 파니까 남녀가 포함된 50여 명의 시신이 두 명씩 묶인 채로 몸에 총구멍이 나있고 피가 범벅이 된 채로 땅속에 묻혀 있었다. 삼베 조끼와 의복, 금이빨을 확인하고 부친을 찾아 수동면 하산리 뒷산으로 이장을 하였다.(신청인이 사망하여 진실규명신청서 내용을 정리하였다.)	1950년 7월 27일경 총을 맨 두 사람(치안대장을 했던 정극상의 부하라고 들었음)이 와서 아버지에게 강연회를 들으러 오라고 하여 아버지, 정인현, 정현상을 데리고 갔다. 그 후 정현상은 몸이 아파 되돌아오고 정인현도 함양으로 가는 도중에 같은 '정씨'라는 이유로 풀려났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곡지서에서 함양으로 갈 때 약 13명이 함께 갔다는 말을 들었다. 함양경찰서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삼촌이 바로 갔는데 사람들은 없고 신발들만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버지 신발을 확인했다. 아버지를 비롯한 사람들이 7월 27일경 석복면 보골에서 희생되어 시신은 수습하였다. (참고인 임분남 진술조서, 2009.06.29.)
3063	이춘성	이종태(아들, 당시 16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 이춘성이 대한청년단활동을 했다. 아버지가 경찰과 개인적 감정이 안 좋았는데 전쟁 발발 후에 면소재지에 간다고 나간 후에 행방불명되었고, 빨치산도발을 위해 함양읍에 주둔 중이던 군부대로부터 사망통지를 받고 석복면 보골에서 시신을 수습하였다. 수습당시 구덩이는 2개 있었고 한 구덩이에 약 30~40구의 시신이 있었다. 현재 제사는 집나간 날을 기준으로 음력 6월 10일로 지내고 있다. (신청인 이종태 진술조서, 2008.01.23.)	이옥순(주민, 당시 2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편 이영운과, 한마을에 살던 임원섭, 이춘성이 보도연맹에 가입하여 1950년 음력 6월경에 보골에서 함께 총살되었고 모두 시신을 수습하였다. 시신수습 당시 커다랗고 깊은 구덩이에 시신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다. (참고인 이옥순 진술조서, 2009.06.17.)
3064	이영운	이옥순(부인, 당시 2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편 이영운, 사촌사숙 이춘성이 보도연맹에 가입하여 전쟁이 발발하자 사복형사에게 연행되었다. 함양경찰서에 구금되어 얼굴을 확인하였고, 1950년 7월 27일에 보골에서 총살되어 시신을 수습하였다. 시신수습당시 커다랗고 깊은 구덩이에 시신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다. (참고인 이옥순 진술조서, 2009.06.17.)	임재근(사건번호 다-3062 신청인, 당시 18세), 이종태(사건번호 다-3063 신청인, 당시 16세)는 국민보도연맹원 희생장소인 보골에서 신청인 이옥순과 함께 시신을 수습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065	정용진	정철상(아들, 당시 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빨치산들이 밤에 마을에 내려와 식량을 빼앗아가는 일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지서에 잡혀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고 보도연맹에 가입하라고 권유를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가입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전쟁이 발발하자 경찰 2명이 마을회관에 모이라고 해서 마을 사람 6명을 연행하였고 함양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희생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무렵 보골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여 보골에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시신의 부패가 심하여 	허경오(주민, 당시 2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마을에 사는 정용진, 신종선, 박을용, 허도원, 고광만, 허정근 등이 보도연맹 사건으로 1950년 7~8월경에 사살되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경찰이 며칠 간격으로 와서 위 사람들을 연행해 갔으며 장소불상에서 모두 사살되었다. 이중 본인과 인척간인 허도원은 개평가는 고개(일명 가운데고개)에서 약 5~6명과 함께 사살되어 있었고 시신을 수습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했는지는 모르겠다. (참고인 허경오 진술조서, 2009.06.16.)

제 6 권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신청인 주요진술	참고인 주요진술
3065	정용진	수습은 하지 못하였다. 이런 제반 사실은 어릴 때부터 마을 사람들로부터 듣고 자랐다. (신청인 정철상 진술조서, 2008.12.11.)	
3360	권재덕	권광수(손자, 당시 2세) • 조부 권재덕이 보도연맹 사건으로 1950년 7월 18일경 함양군 수동면 본통고개 인근 계곡에서 사살되었으며 시신은 수습하였다고 들었다. (신청인 권광수 진술조서, 2009.06.17.)	권형순(조카, 당시 22세) • 숙부 권재덕이 보도연맹 사건으로 1950년 7월 18일경 함양군 수동면 본통고개 인근 계곡에서 사살되었으며 시신을 수습하였다. (참고인 권형순 진술조서, 2009.06.19.)
4089	최희원	최천대자(딸, 당시 8세) • 아버지 최희원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고 좌익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연행된 것 같다. 전쟁 발발 후 1950년 지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함양경찰서에 구금되었다. 작은 외할아버지가 함양읍에 갔다가 아버지를 태운 트럭을 발견하였고 아버지는 입고 있던 조끼를 벗어주었다. 그 후로 아버지는 행방을 알 수 없고 제사는 음력 9월 9일 지내고 있다. (신청인 최천대자 진술조서, 2009.02.05.)	박두희(주민, 당시 20세) · 한기옥(주민, 당시 15세) • 6.25전쟁이 난 여름 서하지서 경찰에 의해 최희원이 연행된 후 행방불명되었다. 최희원은 좌익활동을 했던 사람과 가까이 지냈다는 소문이 지서에 알려지면서 붙잡혀가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인 박두희 · 한기옥 진술조서, 2009.02.05.)
5560	박종달	박정호(아들, 당시 4세) • 1950년 음력 6월 아버지 박종달을 포함하여 4명이 함양경찰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함양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며칠 후에 함양읍 백연리 두재고개에서 사망했다는 소문을 접하고 시신을 수습하였다. (신청인 박정호 진술조서, 2009.06.12.)	박승천(주민, 당시 22세) • 6.25가 나고 인민군이 함양에 오기전 같은 마을 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사람들 중에 박승창은 본통고개에서 희생되었고, 박정희의 아버지 박종달이 백연리 두재고개에서 여성현의 형 여옥현이 난평리 신기마을 보골에서 희생되었다. • 당시 보도연맹은 마을의 유지들, 우악들이 가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보도연맹원 희생에 함양경찰서 오정상 형사가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인 박승천 진술조서, 2009.06.11.)
5649	엄무성 유소아지	엄두리치(딸, 당시 11세) • 아버지 엄무성과 어머니 유소아지가 고무신을 준다는 말에 보도연맹 가입도장을 찍었다. 석복면에서 보도연맹 가입자가 약 40~50명 정도 된다. 전쟁 발발 직후 석복지서 경찰이 보도연맹 가입자를 연행해 간 후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 후 함양군 석복면 뒷산에 구덩이를 파서 사람들을 밀어 넣고 총살당했고 소문을 듣고 시신을 수습하였다. (신청인 엄두리치 진술조서, 2008.04.30.)	
5681	허삼암	허진수(조카, 미출생) • 백부 허삼암이 구장을 할 당시 빨치산들의 강요에 의해 밥을 해준 사실 때문에 전쟁이 발발한 여름 군복입은 사람과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함양경찰서에 구금되었다. 모친과 백모	정옥점(주민, 당시 23세) • 허삼암이 1950년 7월 20일 경찰에게 연행되어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밤나무 숲에서 사망하여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였다. (참고인 정옥점 통화보고서, 2009.09.14.)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신청인 주요진술	참고인 주요진술
5681	허삼암	가 면회를 갔는데 백부를 태운 군용트럭을 목격하였고, 며칠 뒤에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니 희생장소를 알려주어 수동면 밤숲 맞은편 나환 자촌에서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들었다. (신청인 허진수 진술조서, 2008.06.19.)	
6414	신종선	신태일(조카, 당시 11세) • 숙부 신종선이 보도연맹에 가입해 6.25동란 전후에 연행되어 희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망일과 사망장소는 모르고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였다. (신청인 신태일 통화보고서, 2009.02.12.)	허경오(주민, 당시 20세) • 같은 마을에 사는 정용진, 신종선, 박을용, 허도원, 고광만, 허정근 등이 보도연맹 사건으로 1950년 7~8월경에 사살되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경찰이 며칠간격으로 와서 위 사람들을 연행해 갔으며 장소불상에서 모두 사살되었다. 이중 본인과 인척간인 허도원은 개평가는 고개(일명 가운데고개)에서 약 5~6명과 함께 사살되어 있었고 시신을 수습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했는지는 모르겠다. (참고인 허경오 진술조서, 2009.06.16.)
6698	강영길	강재감(아들, 당시 9세) • 아버지 강영길이 보도연맹에 가입하였고, 전쟁 발발 후 희의가 있다고 하여 함양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7월 21일경 함양군 수동면 생초원티고개에서 희생되었고 시신을 수습하였다. 당시 사망현장에는 30명 정도가 묶여서 총살당하여 시신이 겹쳐 있었다고 들었다. (신청인 강재감 통화보고서, 2009.04.19.)	강신봉(보도연맹원, 당시 27세) • 강영길이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는데 전쟁 발발 후 음력 6월경 함양경찰서에 잡혀간 후 본통고개에서 사망하였고 시신은 수습하였다. 보도연맹 사건으로 우리 마을에서 죽은 사람은 강영길 한 사람뿐이다. • 그 당시 젊은 사람들은 모두 보도연맹에 가입해야 했는데 우리 마을이 100여 호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을 것이다. 마을에서 가입하라고 하여 가입하였는데 특별한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 강영길이 함양경찰서에 가고 며칠 후에 경찰들이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큰 도로변으로 나오라고 하여 나갔는데 인민군이 진입하여 경찰들이 도망갔다. (참고인 강신봉 진술조서, 2009.06.12.)
7638	배길용	배영삼(조카, 미출생) • 숙부 배길용이 6.25전쟁 중에 집에서 연행되어 본티고개에서 희생되었다고 아버지에게 들었고 시신수습은 못하였으며 현재 제사는 음력 9월 9일로 지내고 있다. (신청인 배영삼 통화보고서, 2009.02.27.)	허시일(주민, 당시 15세), 허사인(주민, 당시 18세)배씨가 거주했던 것은 기억나지만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되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 (참고인 허시일, 허사인 면담보고서, 2009.08.02.)
9976	박승창	박승대(동생, 당시 14세) • 형 박승창은 좌익경력이 없으나 똑똑하고 운동을 잘해서 경찰이 평소에 경계하였고 여러 번 가둔바 있어서 보도연맹에 강제로 가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 발발 후에 경찰이 집으로 와서 형을 연행하여 1950년 7월 23일경 수동면	박승천(주민, 당시 22세) • 6.25가 나고 인민군이 함양에 오기 전 같은 마을 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사람들 중에 박승창은 본통고개에서 희생되었고, 박정희의 아버지 박종달이 백연리 두재고개에서 여성현의 형 여옥현이 난평리 신기마을 보골에서 희생되었다.

제 6 권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신청인 주요진술	참고인 주요진술
9976	박승창	본통고개에서 사살되어 시신을 수습하였다. • 약 10년 후에 경찰서에 재직하고 있던 신형 사(성명미상)가 보도연맹원을 죽인 것을 시인한 적이 있다. (신청인 박승대 진술조서, 2009.06.11.)	• 당시 보도연맹은 마을의 유지들, 우익들이 가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보도연맹원 희생에 함양경찰서 오정상 형사가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인 박승천 진술조서, 2009.06.11.)
9977	여옥현	여성현(동생, 당시 15세) • 형 여옥현이 전쟁 발발 즈음 함양경찰서로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고 자진 출두하였고 함양읍 보골에서 사살되었다. 희생사실을 접하고 7월 26일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하였다. (신청인 여성현 통화보고서, 2009.04.19.)	
9978	하종갑	하상민(손자, 미출생) • 1950년 7월경 인민군이 남하할 때 경찰과 국군이 보도연맹원들을 함양군 백전면 인근에서 집단 사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신청인 하상민과 연락이 되지 않아 진실규명신청서 내용을 정리했다.)	
2572 (1)	김석배	이석순(제수, 당시 9세) ⁸¹⁾ • 6.25전쟁이 난 그해 여름 함양경찰이 찾아와 눈에 있던 김석배를 데리고 가서 죽였다고 들었다. (신청인 이석순 진술조서, 2008.07.22.)	

나) 주요 참고인 조사(경찰, 보도연맹가입자, 시신수습자 등)

진실화해위원회는 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함양경찰서 소속 경찰, 의용경찰, 시신수습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참고인의 주요 진술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주요 참고인 진술내용

성명 (당시 나이)	사건 관련성	주요 진술내용
하○○ ⁸²⁾ (26세)	함양경서 사찰계	• 여순반란사건이 난 이후 함양경찰서 사찰계에서 근무했다. 보도연맹은 사찰계가 담당했으며, 보도연맹원들이 함양군 난평리 보골과 수동면 화산리 밤나무 숲에서 처리한 것을 알고 있다. 당시 외근을 했기 때문에 보도연맹원 처리할 때 현장에 없었다.
김○○ ⁸³⁾ (22세)	서하지서 차석	• 6.25 때 함양군 서하지서 차석으로 근무했다. 서하면에서 보도연맹원을 가입시킬 때는 자수서를 받았다. 자수서에는 무슨 일을 했었고,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내용을 썼다. 보도연맹 가입자들은 빨치산에게 협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함양군의

81) 신청인 이석순 진술조서, 2008.07.22.; 1960년 함양군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서류철에 희생자 명단이 있다.

성명 (당시 나이)	사건 관련성	주요 진술내용
김○○ (22세)	서하지서 차석	보도연맹원 숫자는 잘 모른다. 각 면마다 인원수가 달랐다. 보도연맹은 면단위에서 구성되었고 직책을 주고 관리를 했다. 서하면에서 보도연맹원들에게 강연이나 교육을 한 기억은 없다. 보도연맹원들을 처리한 것은 인민군이 내려올 때 이군에게 총을 들까봐 처리한 것으로 안다. 보도연맹원들은 명단이 있어서 그 명단을 가지고 처리했을 것이며, 함양군에서는 난평리 보골과 수동면 화산리 밤나무 숲에서 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박○○ ⁸⁴⁾ (22세)	서하지서 특공대원 (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하면의 보도연맹원들은 새벽에 지서에 모이라고 한 후 트럭에 태워 데려갔다. 당시에 인민군들이 육십령재로 막 넘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모인 사람만 데려갔다. 새벽에 안 나온 사람들은 살았다. 서하에서 보도연맹원들이 많이 희생되지는 않았다. 보도연맹원들이 어디에서 희생되었는지는 모른다. 당시 보도연맹원들을 소집한 것은 서하지서 순경들이었다.
최○○ ⁸⁵⁾ (24세)	휴천지서 특공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천면 보도연맹원은 휴천면 대포리에서 우리 아군들이 후퇴하면서 사살한 것으로 안다. 보도연맹원은 지서에 명단이 있어서 경찰들이 마을에 가서 데려왔다. 마을에 가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데리고 왔다. 지서로 데리고 온 보도연맹원들은 휴천면 대포리(지서에서 약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즉결처형했다. 약 50명 정도 될 것이다. 국군 1개 소대와 휴천지서 경찰들이 함께 사살했다.
박묘준 ⁸⁶⁾ (22세)	시신수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 조문옥은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는데 전쟁이 발발하자 경찰에게 소집되어 함양읍 난평리 보골에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시신을 수습하였다. 당시 커다란 구덩이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 있었다.
허경오 ⁸⁷⁾ (20세)	시신수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이 발발하자 경찰이 마을 사람들을 연행해 갔는데 그 중 허도원의 시신을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가운데 고개(보산리에서 개평리 가는 방향 도로 왼쪽편)에서 수습했다. 당시 5~6명이 함께 사살되어 있었다.
박승대 ⁸⁸⁾ (14세)	시신수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실규명대상자 박승창은 사망하기 한 달 사이에 함양경찰서에 2번 잡혀갔다가 풀려났는데 세 번째 잡혀간 후 사망하였다.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밤나무 숲에서 시신을 수습하였다. 당시 현장에는 수십 구의 시신이 있었다.
허사일, (12세) 허사인 ⁸⁹⁾ (18세)	미신청유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 허사옥이 휴천면 호산리에서 마을 구장을 했는데 보도연맹사건으로 휴천면 대포지서에 잡혀갔다가 풀려난 후 다시 경찰서로 잡혀간 후 본통고개에서 사망하여 부모님이 시신을 수습하였다. 당시 사촌형이 함양읍장인 허사원이었다.
강신봉 ⁹⁰⁾ (26세)	보도연맹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면에 사는 강영길이 마을 구장을 했는데 경찰에게 연행되어 수동면 본통고개 근처에서 사망하여 친척들이 시신을 수습했다. 강영길이 사망한 며칠후 경찰들이 보도연맹원을 소집하였으나 인민군이 들어닥쳐 경찰들이 도망갔다. 당시 우리 마을 젊은 사람들은 보도연맹에 다 가입해 있었다.

82) 참고인 하○○ 면담보고서, 2009.08.27.

83) 참고인 김○○ 면담보고서, 2009.08.27.

84) 참고인 박○○ 면담보고서, 2008.11.17.

85) 참고인 최○○ 면담보고서, 2008.10.09.

86) 참고인 박묘준 진술조서, 2009.06.17.

87) 참고인 허경오 진술조서, 2009.06.16.

88) 신청인 박승대 통화보고서, 2009.04.16.; 신청인 박승대 진술조서, 2009.06.11.

89) 참고인 허사일, 허사인 면담보고서, 2009.08.02.

나. 조사결과

1) 함양 국민보도연맹 결성, 가입경위 및 활동

조사결과 국민보도연맹 함양군연맹의 규모, 결성일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1950년 1월 14일자 자유민보 광고면에 '국민보도연맹 함양군지부 간사장 정장현, 사무국장 박종두, 총무과장 차금영, 보도과장 차재곤, 조직선전과장 이창호'라고 실려있다. 신문에 실린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보도연맹 함양군 지부의 조직체제와 간부진은 최소 1950년 1월 14일 이전에 구성되었다고 판단된다.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진실규명대상자들이 함양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된 경위를 보면 좌익단체에 가입했거나 좌익활동 혐의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하지서 차석 김○○의 진술에 의하면 '국민보도연맹 가입자들은 빨치산에게 협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가입 시킬 때는 자수서를 받았다'고 했다.⁹¹⁾ 진실규명대상자 이타관개는 '밤이면 빨갱이가 와서 주민을 괴롭히는 관계로 어느 날 지서 순경이 끌고 가 구타하고, 보도연맹에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했으며 전영석은 안의지서 순경이 '빨갱이에게 밥을 해주었으니 보도연맹에 가입해야 한다.'고 해서 가입했다고 진술했다.⁹²⁾

그러나 좌익활동과 무관하게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참고인 강신봉은 '마을 청년들은 다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했으며, 그냥 입으로 가입한다고 하면 가입되는 것이었다.'고 했으며⁹³⁾, 진실규명대상자 임원섭의 경우 '마을 구장이 보도연맹에 가입하라고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가입'했으며⁹⁴⁾, 엄무성, 유소아지의 경우 '동네 구장이 도장을 찍어주면 고무신을 준다고 하여 부모님이 함께 가입했다.'⁹⁵⁾고 진술했다. 참고인들의 이러한 진술은 국민보도연맹이 어떠한 성격을 갖는 단체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마을 구장 등의 요구에 따라 일괄적으로 가입한 사례로 판단된다.

하지만 신청인, 참고인 중 상당수는 진실규명대상자들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한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함양군에서 국민보도연맹의 교육, 강연 등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

90) 참고인 강신봉 진술조서, 2009.06.12.

91) 참고인 김○○ 면담보고서, 2009.08.27.

92) 신청인 이창우 진실규명신청서, 2006.01.25.; 신청인 전영호 진술조서, 2008.04.29.

93) 참고인 강신봉 진술조서, 2009.06.12.

94) 참고인 임분남 진술조서, 2009.06.29.

95) 신청인 엄두리치 진술조서, 2008.04.30.

다. 함양경찰서 사찰계 형사 하○○와 서하지서 차석 김○○의 진술에서도 보도연맹원에 대한 교육, 강연, 훈련 등과 관련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참고인 박묘준이 ‘지곡국민학교로 보도연맹원들을 소집하여 대나무창을 들고 훈련을 한 적이 더러 있었다.’는 진술⁹⁶⁾을 통해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소집과 훈련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2) 예비검속 및 희생경위

신청인 및 참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하자 진실규명대상자들이 함양경찰서 경찰에게 연행되거나 소집되어 함양경찰서 유치장, 지서 등에 구금되었다가 함양읍 난평리 보골, 함양읍 백연리 두재고개, 수동면 화산리 밤나무 숲, 보산면 지곡리 가운데고개 등에서 사살되었으며 일부 유족은 시신을 수습한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다.⁹⁷⁾

신청인 박정호는 ‘진실규명대상자 박종달 등 같은 마을 사람 4명은 1950년 7월경 마을 앞에서 함양경찰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함양읍 백연리 두재고개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진술했다.⁹⁸⁾

진실규명대상자 조문옥, 이경록 등은 1950년 7월 중순경 ‘보도연맹원 소집’ 연락을 받거나 ‘지곡지서 경찰과 정극상이 지서로 데려간 후’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난평리 보골에서 시신을 수습하였다.⁹⁹⁾고 진술했다. 그리고 희생자 임원섭은 ‘치안대장을 하던 정극상의 부하들이 집으로 찾아와 강연회가 있으니 들으러 오라고 하면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정인현, 정현상 등과 함께 데려갔는데, 정현상은 몸이 아파서, 정인현은 정극상과 같은 하동 정씨여서 풀어주었다고 정인현이 마을에 돌아와 얘기했다.’고 신청인 임분남은 진술했다.¹⁰⁰⁾

신청인 박승대, 차정호는 진실규명대상자 박승창, 차태석이 ‘사망하기 얼마전 함양경찰서와 백전지서에 각각 잡혀 갔을 때 집에서 돈을 주고 빼내오기도 하였으나 7월 중순경 다시 경찰에게 연행되어 수동면 화산리 밤나무 숲과 난평리 보골에서 사망하여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진술했다.¹⁰¹⁾

진실규명대상자 이춘성의 경우 ‘대한청년단 활동을 하던 우익단체 인사였는데, 송계지

96) 참고인 박묘준 진술조서, 2009.06.17.

97) 참고인 김창록 진술조서, 2008.03.26.; 참고인 이동수 진술조서, 2009.06.15.; 참고인 허경오 진술조서, 2009.06.16.; 신청인 박정호 진술조서, 2009.06.12.

98) 신청인 박정호 진술조서, 2009.06.12.

99) 참고인 박묘준 진술조서, 2009.06.17.; 참고인 김창록 진술조서, 2009.03.26.

100) 신청인 임분남 진술조서, 2009.06.29.

101) 신청인 박승대 진술조서, 2009.06.11.; 신청인 차정호 진술조서, 2009.02.02.

제 6 권

서 경찰과 사적 감정으로 희생되었다.’고 신청인 이종태는 진술했다.¹⁰²⁾ 희생자 이춘성이 우익단체에서 활동하던 근거로 신청인 이종태는 국민훈련원 함양분원 제1기생 수료기념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¹⁰³⁾

또한 함양에서 국민보도연맹원 희생사건 당시 ‘대살’ (代殺)도 있었음을 추정케 하는 내용도 있다. 미신청인 김한영은 자전 에세이 『80에 낸 속죄의 글』에서 ‘자신은 남로당 활동을 하였고 이후 입산하여 빨치산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 수감되기도 했으며,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연행되어 함양경찰서 유치장에 반복 수감된 적이 있다. 그래서 서울로 도피하여 생활하던 중 전쟁이 발발하였는데 그때 자신을 잡으러온 경찰에게 동생과 어머니가 연행되어 본인을 대신하여 살해되었다’고 한다.¹⁰⁴⁾

함양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의 희생과정은 다음의 진술을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다.

서하면에서 특공대원을 하던 참고인 박○○은¹⁰⁵⁾,

“서하면의 보도연맹원들은 새벽에 지서에 모이라고 한후 트럭에 태워 데려갔다. 당시에 인민군들이 육십령재로 막 넘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모인 사람만 데려갔다. 새벽에 안 나온 사람들은 살았다.”

백전면에 거주하던 참고인 진대일은,¹⁰⁶⁾

“전쟁이 나고 나서 인민군이 내려올 때 경찰들은 마을에 구덩이를 여러 개 파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숨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후퇴하려고 했는데 인민군이 빨리 내려와서 미처 죽이지 못하고 후퇴했습니다. 경찰이 후퇴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지서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처형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 마을 사람들이 그 명단을 보았습니다. 그 명단은 보도연맹원 명단이었을 것입니다.”

수동면에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참고인 강신봉은¹⁰⁷⁾,

102) 신청인 이종태 진술조서, 2008.01.23.

103) 그러나 국민훈련원 교육이수 기록 자체만으로 희생자가 우익인사였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 국민훈련원은 우익정치세력의 국민운동 간부 양성과 함께 좌익활동 전력자를 교육시켜 계도하는 역할을 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104) 김한영, 자전 에세이 『80에 낸 속죄의 글』, 육일문화사, 2007.01.17.; 김한영은 1949년말경부터 서울에서 도피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105) 참고인 박○○ 면담보고서, 2008.11.17.

106) 참고인 진대일 진술조서, 2008.06.04.

107) 참고인 강신봉 진술조서, 2009.06.12.

“(진실규명대상자)강영길이 함양경찰서로 간 며칠 후 경찰들이 마을에서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큰 도로변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마을길을 지나서 지금의 3번국도 도로로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인민군이 들이닥쳐서 경찰들이 도망갔습니다. 당시 경찰들이 큰길가의 집에서 보도연맹원들이 모이기만을 기다리다가 인민군이 개울을 건너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안그러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때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함양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함양경찰서 소속 경찰 등에게 소집 및 연행되어 함양경찰서 유치장, 지서 등에 구금되었다가 함양읍 난평리 보골, 수동면 화산리 밤나무 숲 등에서 집단사살 당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예상보다 빠른 인민군들의 남하로 국민보도연맹원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추정된다.

3) 희생자의 수와 신원

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전체 희생자 규모는 추정할 수 없다. 희생자의 수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주장에 따라 차이가 많았으며, 희생자 수를 추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¹⁰⁸⁾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한 자에 한해 조사하였기 때문에 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전체 희생규모를 추정할 수는 없다.

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중에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원을 확인한 희생자는 24명이고 희생 추정자는 2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함양군에 거주하던 20~40대의 남성이었다. 희생자 확인은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사실을 목격하거나 전문(傳聞)을 통해 알고 있는 자의 진술을 확보한 경우, 시신수습을 한 경우, 1960년 함양군 조사기록, 제적부나 족보에 희생일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하였다.

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된 사람과 확인 근거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108) 1960년 함양군에서 조사하여 기록한 『양민학살진상조사서류철』의 경우 전쟁전후 발생한 민간인희생사건 피해자 전체에 대해 기록했기 때문에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를 따로 구분할 수는 없었다.

〈표 12〉 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와 확인 근거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희생자					확인근거				확인여부
			성명	성별	당시나이	신청인과의관계	당시주소	참고인진술	시신수습여부	1960년기록(109)	제적부·족보기록	
1	2	이복석 (이복석)	이경록 (李慶杓)	남	39	부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70	김창록	○			확인
2	952	이창우 (이창우)	이타관개 (李他官介)	남	45	사촌형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 370	이동수 강상조	○			확인
3	1979	이백은 (李百銀)	이종운 (李鍾云)	남	20	숙부	함양군 병곡면 연덕리 1050	이종원				추정
4	2188	조정현 (趙正鉉)	조문옥 (趙文玉)	남	29	부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70	박묘준	○			확인
5	2189	김말녀 (金末女)	김완철 (金完哲)	남	26	오빠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843	박묘준	○		1950. 7.24.	확인
6	2280	차정호 (車正浩)	차태석 (車泰錫)	남	37	부	함양군 백전면 양백리 561	김삼순	○	○		확인
7	2281	홍중순 (홍중순)	임중섭 (林鍾燮)	남	30	시부	함양군 백전면 양백리 653	김삼순	○	○		확인
8	2604	전영호 (全永浩)	전영석 (全永錫)	남	18	형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38	임광택	○	○		확인
9	3062	임재근 (林在根)	임원섭 (林原燮)	남	43	부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411	임분남 이옥순	○		1950. 7.27.	확인
10	3063	이종태 (李鍾泰)	이춘성 (李春成)	남	37	부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 1167	이옥순	○		1950. 7.27. 함양면 주둔군 본부	확인
11	3064	이옥순 (李玉順)	이영운 (李泳云)	남	26	남편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 1174	임재근 이종태	○			확인
12	3065	정철상 (鄭喆相)	정용진 (鄭龍辰)	남	31	부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838	허경오				확인
13	3360	권광수 (權曠洙)	권재덕 (權載德)	남	58	조부	함양군 지곡면 덕암리 855	권형순	○			확인
14	4089	최천대자 (崔千代子)	최희원 (崔熙元)	남	35	부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1596	박두희				확인
15	5560	박정호 (朴正鎬)	박종달 (朴鍾達)	남	37	부	함양군 함양읍 신천리 132-2	박승천	○			확인
16	5649	엄두리치 (嚴斗利致)	엄무성 (엄무성)	남	모름	부	함양군 석북면 이은리 941		○	○		확인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희생자					확인근거				확인여부
			성명	성별	당시나이	신청인과의관계	당시주소	참고인진술	시신수습여부	1960년기록(109)	제적부·족보기록	
16	5649	엄두리치 (嚴斗利致)	유소아지 (유소아지)	여	모름	모	함양군 석북면 이은리 941		○	○		확인
17	5681	허진수 (許鎭洙)	허삼암 (許三岩)	남	35	백부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975-1	정옥점	○	○		확인
18	6414	신태일 (申太一)	신종선 (申宗先)	남	24	숙부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879	허경오				확인
19	6698	강재감 (姜在淦)	강영길 (姜永吉)	남	36	부	함양군 수동면 내백리 271	강신봉	○			확인
20	7638	배영삼 (裵永三)	배길용 (裵吉龍)	남	33	숙부	함양군 휴천면 태관리 28	허사일				추정 110)
21	9976	박승대 (朴勝大)	박승창 (朴勝昌)	남	26	형	함양군 함양읍 신천리 618	박승천	○			확인
22	9977	여성현 (呂聖鉉)	여옥현 (呂玉鉉)	남	23	형	함양군 함양읍 신천리 613	박승천	○			확인
23	9978	하상민 (하상민)	하종갑 (河宗甲)	남	34	조부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559			○		확인
24	2572 (1)	이석순 (李石順)	김석배 (金錫培)	남	29	시숙	함양군 안의면 교북리 213			○		확인
25	미신청	허사일	허사옥	남	20 대	형	함양군 휴천면 호산리		○			확인

4) 가해주체 및 가해의 지휘명령체계

신청인과 참고인들은 국민보도연맹원들이 함양경찰서 소속 경찰 등에게 연행 혹은 소집되어 구금되었다가 희생당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서하면 특공대에서 서기를 했던 참고인 박○○은 ‘서하면의 보도연맹원들은 새벽에 지사로 모이라고한 후 트럭에 태워 데려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¹¹¹⁾

그리고 당시 함양경찰서 사찰계에 근무하던 하○○와 서하지서 차석으로 근무하던 김○

109) 함양군이 1960년 6월에 관내 10개 읍면에 공문을 보내 한국전쟁 전후 피해사항(희생자와 재산피해)을 파악하여 보고토록 하고, 이 자료를 취합한 보고서를 국회조사단에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경상남도 지사에게 보고한 자료이다.

110) 참고인 조사결과 당시 마을에 거주한 것은 알고 있으나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111) 참고인 박○○ 면담보고서, 2008.11.17.

○는 ‘보도연맹원은 사찰계에서 담당했으며, 보도연맹원들을 함양읍 난평리 보골과 수동면 밤나무 숲에서 처리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함양경찰서의 사건관련 사실을 인정했다.¹¹²⁾

또한 휴천지서에서 특공대장을 하던 참고인 최○○은 ‘휴천면 보도연맹원은 아군들이 후퇴할 때 국군 1개 소대와 휴천지서 경찰들이 함께 사살했다.’고 진술¹¹³⁾ 했으며, 진실규명대상자 이춘성의 경우 ‘함양군에 주둔하던 부대로부터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고 함양읍 난평리 보골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유족과 함께 시신을 찾았다.’¹¹⁴⁾ 는 진술에서 가해주체로 경찰과 국군이 관여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군의 관련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함양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 및 희생사건의 가해주체는 함양경찰서 소속 경찰 및 경찰의 지휘를 받는 우익청년단체로 판단된다. 그러나 가해의 구체적인 지휘명령계통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 소결

함양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은 전쟁이 발발하자 함양경찰서 소속 경찰들에게 연행 혹은 소집된 후 함양경찰서, 지서 등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경 함양읍 난평리 보골, 수동면 화서리 밤나무 숲, 함양읍 백연리 두재고개, 지곡면 보산리 가운데고개 등에서 집단 사살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에 군경에게 민간인이 희생된 사실은 1960년 함양군에서 조사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서류철』에 기록되어 있으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신청자의 명단도 일부 확인되었다.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함양 국민보도연맹원 희생사건의 가해주체는 함양경찰서 소속 경찰로 판단되며 가해의 구체적인 지휘명령계통은 밝혀내지 못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신원을 확인한 희생자는 이경록(李慶祿), 이타관개(李他官介), 조문옥(趙文玉), 김완철(金完哲), 차태석(車泰錫), 임종섭(林鍾燮), 전영석(全永錫), 임원섭(林原燮), 이춘성(李春成), 이영운(李泳云), 정용진(鄭龍辰), 권재덕(權載德), 최희원(崔熙元), 박종달(朴鍾達), 엄무성(嚴무성), 유소아지(유소아지), 허삼암(許三岩), 신종선(申宗先), 강영길(姜永吉), 박승창(朴勝昌), 여옥현(呂玉鉉), 하종갑(河宗甲), 김석배(金錫培), 허사옥(미신청) 등 24명이며,

112) 참고인 하○○, 김○○ 면담보고서, 2009.08.27.

113) 참고인 최○○ 면담보고서, 2008.10.09.

114) 신청인 이춘태 진술조서, 2008.01.23.: 이춘성의 제적등본에 1950년 7월 20일 함양면 주둔 군본부에서 사망했다고 기록되었다.

희생 추정자는 이중운(李鍾云), 배길용(裴吉龍) 등 2명이다.

Ⅲ.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상남도 거창·산청·함양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이 거창경찰서, 산청경찰서, 함양경찰서 경찰에게 1950년 7월경 집단 사살되었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국민보도연맹 경상남도연맹 각 군연맹에 가입되었던 국민보도연맹원을 포함한 예비검속 대상자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관할 경찰서(지서) 소속 경찰에게 연행되거나 소집통보를 받고 출두하였다가 경찰서 유치장, 지서, 상업은행창고, 양조장창고 등에 구금되었다. 이들은 이전의 좌익 활동경력 정도에 따라 분류되어 지역 경찰서의 후퇴가 임박하였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집단 사살되었다.

나. 경상남도 거창·산청·함양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전체 희생자 수를 추정할 수는 없다. 다만,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87명이고, 희생 추정자는 4명이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거창지역 희생자는 곽천섭(郭天燮, 다-79), 엄판용(嚴判龍, 다-358), 곽환섭(郭歡燮, 다-358), 김행두(金行斗, 다-358), 김형진(金炯進, 다-358), 김형규(金炯圭, 다-358), 김재규(金在圭, 다-358), 김형문(金炯文, 다-358), 한만봉(韓萬鳳, 다-358), 박재준(朴在俊, 다-358), 신익성(愼益晟, 다-358), 신성재(愼晟緯, 다-358), 백종석(白鍾錫, 다-358), 백종문(白鍾文, 다-358), 이월문(李月文, 다-358), 유응락(柳應落, 다-358), 류재하(柳在河, 다-358), 이희구(李熙九, 다-358), 양개이(梁介伊, 다-358), 박순억(朴順億, 다-358), 백영복(白永福, 다-358), 이윤중(李潤鍾, 다-358), 백무흠(白武欽, 다-358), 백봉흠(白奉欽, 다-358), 어문우(魚文愚, 다-358), 주재근(朱在根, 다-358), 엄차술(嚴且述, 다-358), 이구관(李九管, 다-3066), 신위흥(愼魏興, 다-3090), 김봉택(金鳳鐸, 다-3725), 신종우(愼鍾宇, 다-5335), 임재만(林載萬, 다-6644), 박광남(朴光南, 다-7236), 박석봉(朴石奉, 다-8382), 임기식(林基植, 다-8386), 이덕중(미신청) 등 36명이다.

산청지역 희생자는 이성실(이성실, 다-273), 민을호(閔乙鎬, 다-361), 민경생(閔慶生, 다

제 6 권

-361), 민상호(閔相鎬, 다-361), 홍인수(洪寅洙, 다-375), 박호조(朴好祚, 다-558), 배차수(裴且壽, 다-3390), 이포상(李又相, 다-3463), 문정석(文正碩, 다-3761), 김수연(金壽漣, 다-3761), 문홍국(文洪國, 다-3761), 민영조(閔永祚, 다-3761), 문대주(文大柱, 다-3761), 노우분(盧又紛, 다-3761), 문인주(文仁柱, 다-3761), 문성주(文成柱, 다-3761), 김씨(金氏, 다-3761), 문국현(文國鉉, 다-3761), 김종만(金鍾萬, 다-4389), 최종환(崔宗煥, 다-5259), 김성진(金聖辰, 다-5260), 이상대(李相大, 다-6458), 권재도(權載道, 다-7718), 정정근(鄭貞根, 다-8314), 강철관(姜招判, 다-8319), 노을상(盧乙相, 다-8467), 하재문(河載文, 다-9784(1)) 등 27명이며, 희생 추정자는 노상식(盧相植, 다-8318), 민치상(미신청) 등 2명이다.

함양지역 희생자는 이경록(李慶祿, 다-2), 이타관개(李他官介, 다-952), 조문옥(趙文玉, 다-2188), 김완철(金完哲, 다-2189), 차태석(車泰錫, 다-2280), 임종섭(林鍾燮, 다-2281), 전영석(全永錫, 다-2604), 임원섭(林原燮, 다-3062), 이춘성(李春成, 다-3063), 이영운(李泳云, 다-3064), 정용진(鄭龍辰, 다-3065), 권재덕(權載德, 다-3360), 최희원(崔熙元, 다-4089), 박종달(朴鍾達, 다-5560), 엄무성(엄무성, 다-5649), 유소아지(유소아지, 다-5649), 허삼암(許三岩, 다-5681), 신종선(申宗先, 다-6414), 강영길(姜永吉, 다-6698), 박승창(朴勝昌, 다-9976), 여옥현(呂玉鉉, 다-9977), 하종갑(河宗甲, 다-9978), 김석배(金錫培, 다-2572(1)), 허사옥(미신청) 등 24명이며, 희생 추정자는 이종운(李鍾云, 다-1979), 배길용(裴吉龍, 다-7638) 2명이다.

다.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국민보도연맹원 및 좌익혐의 등을 이유로 예비검속된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좌익활동 경력이 있었던 자수·전향자였고 일부는 좌익활동과 무관한 남성들로서 대체로 20~40대의 농업을 업으로 하는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당시 가해주체는 희생자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확인과정이나 사살의 법적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다만 이들이 인민군에게 동조하여 후방을 교란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구금하여 불법사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주체는 거창, 산청, 함양 경찰서(관내 지서 포함)소속 경찰관들이다. 상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사살명령 여부 및 내용을 자료로서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불법사살에 대한 지휘·명령권한은 전시 계엄 하에서 상부기관인 계엄사령부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그 지휘책임은 경찰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마. 거창·산청·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이 관할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을 불법 사살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다. 비록 전시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사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2. 권고사항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국가가 행할 화해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국가의 사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무고한 민간인을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겠다는 계획 하에 법적 절차 없이 집단적으로 사살하고, 그 후 지금까지 유족들을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오게 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위령사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위령제 봉행,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희생현장에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유해 발굴 및 유해안치시설 설치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희생자 대부분의 사망일, 사망장소가 오기되어 있었다. 유족들이 원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을 용이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 역사기록의 수정

거창·산청·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사 기록물이 잘못 기술된 경우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평화인권교육 강화

군인과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인도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시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세대인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별첨 - 희생현장사진]

[사진 1] 합천군 묘산면 마령재



거창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자들이 1950년 7월 21일경 희생된 장소이다. 거창에서 합천가는 방향 24번 국도변 우측이며, 거창경찰서에서 약 27km 거리에 있다.

[사진 2] 합천군 봉산면 권빈재



거창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자들이 1950년 7월 27일경 희생된 장소이다. 거창에서 합천가는 방향 24번 국도 좌측 셋길이며, 거창경찰서에서 20km 거리에 있다. 국민보도연맹원 이○○가 이곳으로 끌려왔다가 총에 맞지 않고 살아 살아났다.

[사진 3] 생초면 어서리 본통고개



산청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자들이 1950년 7월 20일경 희생된 장소이다. 산청에서 함양가는 방향 3번 국도 좌측이며, 함양군과 경계지점이다. 국민보도연맹원 민치학이 이곳으로 끌려와 총에 맞았으나 살아났다.

[사진 4] 산청읍 내리 마당머리



산청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자들이 1950년 7월 하순경 희생된 장소이다. 이곳에서는 우익단체회원으로 희생되었다.

[사진 5] 산청읍 지리 안개골



산청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자들이 1950년 7월 하순경 희생된 장소이다. 이 곳에서 목곡리에 거주하던 문씨 집안사람 10명이 ‘대살’ (代殺)되었다. 현재는 도로 확장공사로 산모퉁이를 절개하여 당시 지형과는 다르다.

[사진 6] 산청읍 내리 쌀고개 앞



산청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자들이 1950년 7월 하순경 희생된 장소이다. 산청에서 진주 가는 방향 3번 국도 우측이다. 목격자는 이곳에서 희생자 30여 명이 구덩이를 판 후 사살되었다고 진술했다.

[사진 7] 수동면 화산리 밤나무 숲



함양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자들이 1950년 7월 하순경 희생된 장소이다. 함양에서 산청가는 방향 3번 국도 좌측이다.

[사진 8] 함양읍 난평리 보골



함양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자들이 1950년 7월 하순경 희생된 장소이다. 함양에서 남원 가는 방향 24번 국도 좌측이다. 함양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장소이다.

[사진 9] 지곡면 보산리 가운데고개



함양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자들이 1950년 7월 하순경 희생된 장소이다. 함양에서 남원 가는 방향 24번 국도 좌측이다. 참고인은 이곳에서 5~6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사진 10] 함양읍 백연리 두재고개



함양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자들이 1950년 7월 하순경 희생된 장소이다. 함양읍에서 안의면 가는 방향 24번 국도 좌측이다. 이곳에서 4명의 시신을 수습했다.